日帝末 韓國의 工業化에 관한 一考察

林 鍾 哲

目 次

I. 軍需工業建設의 準備段階
1. 事態의 變化
2. 에너지供給의 整備
3. 地下資源의 開發
II. 軍需工業建設의 諸樣相
1. 一般的 考察
2. 重化學工業의 建設
(1) 化學工業
(2) 金屬工業
(3) 機械器具工業
3. 輕工業의 成長
(1) 紡織工業
(2) 窯 業
(3) 食料品工業
4. 經濟的 地域差의 激化
III. 餘他의 經濟的 變化
1. 產業構造
2. 貿易構造

I. 軍需工業建設의 準備段階

1. 事態의 變化

低賃金·長時間勞動이라는 有利한 勞動條件을 갖추고 豐富하고 低廉한 水力資源을 가졌으며, 또 新興產業으로서의 重化學工業을 위하여 多樣한 工業原料資源을 가지고 있던 韓國의 經濟的 價値는 1930년을 前後하여 일어난 두 가지 커다란 歷史的 事件으로 말미암아 決定的으로 日本資本主義의 注目을 받게 되었다. 하나는 1929년 미국의 월 스트리이트에서 시작한 世界大恐慌의 물결에 日本資本主義도 휩쓸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大恐慌의 苦境을 打開하기 위하여 높은 利潤을 가져올 投資市場의 開拓이 必要하였던 바, 獨占段階에 이른 日本資本主義는 滿洲에 대한 軍事的 侵略政策에서 그뜻을 펴려고 하여 1931年 所謂 滿洲事變을 일으키고, 1933年에는 滿洲國을 建設하였다는 것이다.

第1次 世界大戰의 渦中에서 歐美 先進 帝國主義 列強이 아시아 시장을 돌볼 겨를이 없는 틈을 타서, 특히 重化學工業의 飛躍的 發展을 하였던 日本은 終戰과 더불어 戰爭景氣가 사라지자 다소의 退勢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아래의 〈表 1〉에서도 보듯이, 1931년을 제외하고는 中小企業의 犧牲아래 金融資本의 獨占強化라는 길을 통하여 그런대로 活路를 開拓할 수는 있었다. 그렇기에 利潤率의 低下와 遊休資本의 激增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大

資本이 그 工業投資를 海外, 특히 韓國에서 求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고, 工業生産指數가 前年의 80.52에서 79.51로 1.01% 하락한 1921年에 있어서도 韓國에 대해서는 日本産業政策의 方針에 順應하여 産業의 改良, 增殖을 圖謀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다(1). 그러나 1930年 日本을 휩쓴 大恐慌은 그 해의 工業生産을 前年에 比해서 9.93% 下落시켰고, 그 이듬해에도 계속하여 0.57% 下落시키는 作用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大戰直後와 같이 中小企業의 犧牲에 의한 危機克服이 不可能하리 만큼 恐慌의 衝擊이 컸던 것이다.

〈表 1〉 日本의 工業生産指數

연 도	제 조 공 업	연 도	제 조 공 업
1917	65.18	27	134.62
18	73.28	28	147.44
19	79.02	29	163.31
20	80.52	30	153.38
21	79.51	31	152.81
22	92.71	32	167.71
23	99.60	33	192.54
24	107.75	34	213.33
25	110.77	35	229.94
26	127.38	36	245.35

資料 : 都留重人 大川一司編『日本經濟の分析』第1卷 p. 77 參照.

大恐慌下의 세계에 있어서는 安價한 商品을 製造하는 指導的 企業家가 분명히 유리하다. 그러나 熟練勞動이 부족하였고 매우 競爭的인 國際市場에 직면하며 生存을 위한 效率引上에 완전히 成功的인 適應을 할 수 없었던 日本經濟는 한편으로는 産業의 寡占化와 강력한 財閥의 형성으로 돌달음쳤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政治的 解決」의 길을 더듬어 나갔다(2). 1931년의 滿洲事變과 또 三井, 三菱, 住友, 野口 등 大財閥 資本에 의한 한국의 軍需工業 및 兵站基地化, 그리고 서울—安東—奉天을 뚫는 「安奉線루트」및 北鮮루트를 중심한 적극적인 大陸政策 특히 對소政策과 그 經濟的 對應인 滿洲의 軍需産業開發 등이 곧 그 것이다(3). "일본은 滿洲를 占奪함으로서써 國內民衆의 關心을 國外로 쏠리게 하고, 또 國內

(1) 趙璣濬, 『韓國經濟史』 411面 參照.

(2) W.W. Lockwood, ed. *The State and Economic Enterprise in Japan*. Princeton Univ. Press, 1965, 日譯書 p. 69.

(3) 旗田 巍, 『朝鮮史』 pp. 218~19 參照. 이러한 歷史的 事件에 대하여 「日本이 선택한 政治的 解決은 커다란 不幸으로 끝났다. 그것은 수 년간의 相對的인 번영을 가져 오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代價를 支拂할만한 價値가 있었다고 주장할 사람은 오늘날에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W.W. Lockwood는 말하고 있다. cf. Lockwood, 前揭書 p. 69 그러나 당시로서는 軍備擴張政策은 비교적 쉽게 經濟成長을 提高할 수 있었고, 그것이 植民地經濟에 또 다른 衝擊을 주어 韓國經濟에 決定的 歪曲을 가져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日人史學者 旗田

失業者群을 大陸으로 排出하는 同時에 戰爭 遂行을 위한 軍需產業의 建設로써 產業界에 活氣를 주자는 것이었다[4]. 滿洲事變과 그에 뒤이은 滿洲國의 建設로 中國의 東北地方은 日本資本主義의 獨占的 販賣市場으로서 새로이 確固하게 編入되었으며 이 때문에 地理的으로 有利한 位置에 있었던 韓國에 工業이 일어날 수 있는 制度的 條件이 마련될 수 있었다. "治安도 確保되고 모든 行政機關에서 日本人이 그 수효에 있어서나 세력에 있어서 不動한 態勢를 갖추게 된"[5] 韓國은 이제는 大陸進出을 위한 橋頭堡의 地位에서 벗어나 하나의 日本領土를 構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日本의 產業領域이 韓國에까지 擴張되어도 何等의 危險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滿洲事變을 契機로 造成된 國際政局의 緊張은 國防 經濟的 見地에서 朝鮮의 資源을 再檢討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所謂 '軍需 인플레" 아래에서의 軍需工業會社를 위해서도 經濟的으로 必要하였다. 이리하여 各種 資源 특히 地方資源의 發見이 促進되고, 그것이 다시 韓國의 工業化를 일으키는 하나의 有力한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이 동안의 事情은 1936年 가을 總督府에 의해 서울에서 開催된 朝鮮產業經濟調査會의 答申인 "朝鮮產業經濟開發에 관한 一般方針"에서도 具體的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그 全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產業經濟開發에 관한 一般方針

朝鮮에 있어서의 產業經濟는 現下의 政治·經濟·思想 等 各級의 國際的 情勢에 비추어 또 日滿一體 強化 國策上 朝鮮이 地理的 및 資源的으로 짊어져야 할 重責에 勘하여 國策의 大綱에 順應하여 積極的으로 開發進興의 方策을 講求할 時機에 當面하였으므로 迅速히 原始產業中心의 方策으로부터 多種 廣範한 產業의 全般的 發展政策에 轉換하여 農工竝進을 本으로 하여 產業大衆의 厚生을 圖謀하고, 農本을 培養하는 한편 餘他의 諸產業, 특히 搖籃期에 있는 鑛工業에 대해서는 그 飛躍的 振興을 期하는 同時에 內地 및 滿洲와 產業과의 連絡을 緊密히 하고 朝鮮의 地理的 및 資源的 特質에 勘하여 帝國 全般의 需要充足에 充分한 寄與를 하도록 할 用意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政策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世界經濟의 情勢, 특히 現下 時局의 重大性에 감하여 우리 經濟圈內에 있어서의

巍는 「韓國工業은 일본의 戰時 態勢에 卽應한 再編成이 부득이 해졌다. 그것은 日本을 中核으로 한 日鮮滿의 物資動員計劃에 의해 규제되고, 韓國工業의 發展計劃은 일본의 企劃院이 立案하고 日本의 國家總動員法은 한국도 포함하였다. 한국인의 意思를 무시하여 일본의 戰時動員態勢가 至上命令으로 한국에 강행되었다」고 這間의 사정을 말하고 있으며(cf. 旗田, 前揭書 pp. 220-221) Lockwood도 「식민지의 수출품이 빼앗기고 現地民이 食糧生產者로서 착취되고 식민지 시장이 빈번히 宗主國의 이익을 위하여 占有되는(植民地에 대한) 擴張攻勢를 수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4) 旗田 巍, 『朝鮮史』 215~216面 參照.

(5) 趙璣濬, 前揭書 413面 參照.

資源의 總動員的 活動에 의해 世界經濟圈에서의 勝利者로서의 地位를 確固한 것으로 기르는 同時에 廣意國防의 要望을 充足하는 趣旨 아래 我國 財政金融 其他의 狀況을 勘案하여 그 緩急을 規制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世界大恐慌과 滿洲事變이라는 커다란 要因 以外에도 만주사변 直後에 斷行된 金本位制度의 停止 및 重要產業 統制法의 實施라는 두 가지 事態가 1931年에 있었다는 것을 言及해야 한다. 金本位制度의 停止는 金의 紙幣價格騰貴와 積極的인 產金奬勵라는 두 가지 사태를 誘發함으로써 한국에 空前의 "고울드 러쉬"를 출현시켜 한편으로는 인플레 경기의 유발을 통해 工業育成에 유리한 雰圍氣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狂的인 金鑛探掘의 副產物로서 수많은 地下資源이 發見되어 工業化를 위한 物質的 基盤이 造成되었다. 한편 1931年부터 實施된 重要產業 統制法은 當初에는 日本 國內에서만 施行되고 한국에는 適用되지 않았으므로 이 法의 統制를 避하려는 日本資本은 부득이 한국으로 工業的 進出을 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重要產業 統制法의 適用對象이 아닌 工業分野에서도 檢查制度, 業者의 自由的 統制 等을 避하려고 한국에 進出하는 것도 적지 않았고, 또 低廉한 勞動力을 利用하고 日本에서의 工場法 等 各種의 社會立法이 課하는 負擔을 피하려고 한국 진출을 꾀하는 工業資本도 大恐慌에 의한 經濟的 激變을 契機로 차츰 늘어갔다.

日本을 中心으로 이러한 一聯의 經濟的 및 經濟外的인 事態의 變化以外에도 1930년대를 前後하여 한국에서도 중대한 經濟的 要因이 政策의 變化를 要求하게 되었다. 「朝鮮米 輸入을 增加함으로써 日本內의 食糧難을 打開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內의 遊休資本을 이 朝鮮米 增殖計劃에 投入함으로써 日本產業이 當面한(第1次大戰 直後의) 不景氣를 解消」[6]하려는 目的으로 1920年부터 實施된 產米 增殖計劃에 의해 한국경제는 거의 완전히 米穀生產 中心의 單一 產業型 經濟로서 틀이 잡혀갔다. 그러나 1930년의 大豊作을 契機로 한 農業恐慌은 "朝鮮米穀政策의 主目的인 內地 食糧 普及源으로서의 意義를 顯著히 稀薄케 하여……米穀의 增產 및 對日本 輸出增大를 中心으로 한 朝鮮農業은 必然的으로 再檢討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中心이 된 것은 1926年 以來 예의 國家的 壓力으로써 流行해 온 米穀單一增產 農業의 是正이었다. 1931年 以來 12年間에 걸친 田作改良增殖計劃의 樹立 및 總督 宇垣一成의 所謂 南棉北羊政策은 綿花·羊毛의 增產을 圖謀하여 한편으로는 日本 原料資源의 充實에 寄與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農民의 生活安定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原料政策 및 社會政策的 乃至 更生政策的 考慮에서

(6) 上揭書 311面 參照.

出發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 具體化에 不過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더 深刻하여 졌고, 단지 農業 그 자체를 문제로서 다루는 것 만으로는 결코 充分한 解決策일 수 없었다. 여기에 朝鮮農業發達史上 看過할 수 없는 朝鮮產米增殖計劃의 中止問題가 表面化되고 1934年을 끝으로 그 計劃의 中止를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日本에 대한 米穀의 補充生產地로서의 從屬的 地位를 甘受하고 있던 한국농업은 바로 그 이유로 일본 미곡 사정의 변화에 의해 運命的인 變質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같이 한국농업이 비록 운명적이라고는 하지만 外部的 影響에 의해 變質을 強要당한 데 대해서는 단지 韓國農業 그 자체의 再檢討만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이 점을 생각하여 宇垣은 한 걸음 더 나아가 韓國產業經濟에 再檢討를 加할 必要를 決意하고 단호히 적극적으로 近代產業의 건설을 企圖하였다. 즉 일본에 있는 高度工業의 誘致에 의한 韓國產業의 工業化가 그것으로서 그 疲弊狀態를 克服하는 同時에, 客觀的 情勢의 變化에 基因하는 國防中心의 產業的 基礎를 培養하고자 하였던 것이다(7).

2. 에너지 供給의 整備

공업발전과 社會間接資本의 充足이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음은 새삼스럽게 言及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싼 勞動力과 아웃사이더적인 企業活動의 自由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工業資本을 誘致하지 못한 原因中의 하나는 近代工業을 위한 唯一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電力開發의 可能性이 적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1911年부터 1914年까지에 걸쳐 행하여진 總督府의 第1回 發電水力 調査의 結果는 全國에 理論 發電力이 겨우 57,000Kw에 不過했었다. 그러나 技術進步의 結果 터널 開鑿을 통한 河川自然流量의 調節이 可能해졌고 또 河川流域을 變更할 수 있게 되자, 한국에서는 서쪽으로 흐르는 大河를 上流部에서 막아 一大 貯水池를 築造하는 동시에 脊梁山脈을 관통하는 터널을 파서 그 물을 傾斜가 급한 東海쪽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落差를 얻어 發電할 수 있게 되었다. 192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해 流域變更式 水力發電에 의할 때 무려 225萬Kw라는 막대한 電力資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水力發電에 의한 값싼 전력의 大量供給은 전력을 대량으로 需要하는 化學工業의 成立可能性을 열어 주었다. 1926年 1월에는 赴戰江水系의 電力開發을 目的으로 하여 日本 窒素에 의해 朝鮮水電株式會社가 設立되었고, 이듬해인 1927年 5월에는 그 전력을 기대하여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 創立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 11월에는 赴戰江第一發電所가

(7) 『朝鮮經濟年報』 1941, 42年版 56~57面 參照.

送電을 開始하였고, 그 이듬해인 1930년 1월에는 朝鮮窒素興南工場이 操業을 개시하였다. 이 水力發電에 의한 化學工場은 당시 韓國 뿐만 아니라 日本에도 없었던 대규모의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韓國에서도 근대적인 대공업이 성립할 수 있는 技術的 可能性이 실지로 證明되었다. 「1929년 및 1930년에 있어서의 赴戰江第一發電所의 送電 개시 및 朝鮮窒素興南工場의 操業 개시는 所謂 朝鮮產業革命의 第一步를 劃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以後 朝鮮에서 속출된 諸工業은 많건 적건 朝鮮의 豊富하고도 低廉한 電力資源을 기초로 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8)

1912年에 있어서는 發電力 合計 1,825Kw 중 水力發電은 全無하였고, 1917년에는 7,883Kw 중 不過 75Kw 로서 1%에 未達하였으며, 1922년에 있어서도 총 發電設備 13,934Kw 중 2%에 未及한 275Kw였던 水力發電이 1932年에는 總發電設備 232,175Kw 중 71.6%인 166,704 Kw로 飛躍的으로 커졌고, 다시 1937年에는 624,684Kw의 總發電設備 중 水力發電이 차지하는 比重은 516,350Kw로서 전체의 82.6%를 차지하게 되었다.

〈表 2〉 **發電設備趨勢**

(단위 Kw)

종별 \ 연도	1912	1917	1922	1932	1937
수력	—	75	275	166,704	516,350
기력	1,625	6,475	11,100	58,014	102,400
중유력	—	—	—	5,025	5,814
가스력	200	1,333	2,559	2,775	120
합계	1,825	7,883	13,934	232,518	624,684

資料：上揭年報, 1948年版, Ⅰ-137面 參照

〈表 3〉 **發電水力一覽表**

(해방직전)

	지점수	발전력	이용가능발전력
포장수력	161	6,163,610	4,952,160
기허가수력	51	3,800,810	2,808,810
발진개시	32	1,726,840	1,426,840
공사시공중	9	1,169,750	769,750
〃 미착수	12	904,220	612,220
미허가수력	110	2,362,800	2,143,350
조사필	39	1,306,600	1,188,300
미조사	71	1,056,200	955,050

資料：上揭年報, 1948年版, Ⅰ-138面 參照

(8) 上揭年報 1939年版 70面 參照.

發電水力에 대한 조사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第3回 水力調査에서는 國境河川의 出力을 半으로 계산하여(滿洲와 半分함) 460萬Kw로 늘어 났으며, 40년에 시작한 第4回 水力調査에서는 다시 더 늘어나 包藏水力은 161개 지점에서 6,163,610Kw로, 利用可能發電量은 4,952,160Kw로 각각 推定되었다. 이것을 表로 나타내면 表3과 같다.

그 중 이미 허가된 발전 개시 지점을 보면 豆滿江系의 부령수력이 28,000Kw, 압록강계의 허천강 수력이 338,800Kw, 부전강수력이 201,375Kw, 장진강수력이 326,500Kw, 압록강수력이 70만 Kw이며, 청천강계의 동양합동이 1,500Kw, 陽日川·용흥강계의 咸南水力이 1,185Kw이며 漢江系의 금강산수력이 13,570Kw, 한강수력이 54,000Kw, 都合 1,664,930Kw가 北韓에서 발전되었고, 섬진강系의 운암수력이 5,120Kw, 보성수력이 3,100Kw, 남선수력이 13,850Kw이고 한강계의 한강수력이 39,600Kw, 그 밖에 울릉도와 제주도에 각각 40Kw 및 200Kw의 발전능력이 있어, 南韓에는 都合 61,910K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었다. 南北韓을 合하면 解放直前 總計 1,726,840Kw의 電力이 생산되고 있었다. 水系別發電所의 工業生産 活動과의 관계를 보면 부전강 수력 20萬Kw의 전력은 日本窒素 系統에서 개발하여 日本窒素 系統 工場의 自家 消費用으로 充當되었고, 장진강계의 수력 32萬Kw는 雄基·羅津·會寧방면의 軍需産業 및 西部朝鮮 및 中部朝鮮에 電力을 供給하고 있었고, 허천강계의 34만Kw는 日本窒素의 興南 本宮工場과 청진에서 주로 소비되었고, 부령수력은 대부분 부령에서의 朝鮮電氣冶金에 送電되었었다. 1937년도에 착공하여 1944년 1월 第1期 計劃인 수풍발전소가 준공된 압록강 본류의 발전시설에서는 평균 발전량 64만Kw 중 50%인 32만Kw를 韓國이 供給받고 있었으며, 평안도 일대의 시멘트공업, 製鐵工業 및 肥料工業 등이 주로 그 供給對象이 되었다.

이같이 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대량화되어 감에 따라 電力料金도 점차 低廉해져

〈表 4〉 對動力料金의 韓·日 比較表

(Kw 當)

용 도 별	한 국	일 본	용 도 별	한 국	일 본
전기화학공업	0.30~1.50	0.45~0.90	제 재 업	2.70~3.80	2.30~3.00
제 강 업	2.80~2.90	1.00~3.50	양 조 업	2.60~	2.28~2.50
기 계 공 업	2.30~4.10	1.96~3.42	제분제과업	2.00~4.00	1.98~3.96
시 멘 트 〃	1.90~2.20	2.00~2.50	제 지 업	2.10~2.20	2.00~3.50
방 직 업	1.43~1.80	1.16~2.72	고무가공업	2.40~4.10	3.00~3.25
제 빙 업	2.00~	1.12~3.77			

資料：上揭年報, 1939年版, 244~245面 參照

서 1930년대의 끝에 가서는 〈表 4〉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産業用 電力料金은 水力資源

이 가장 풍부한 일본의 電力料金에 比하여 싸면 쌌지, 결코 비싸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3. 地下資源의 開發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水力資源 以外의 經濟的 資源이 지극히 보잘 것 없었던 日本은 그 世界政策 특히 東洋政策의 重點을 稀少한 原料의 確保에 두었고, 그 成敗가 日本資本主義의 盛衰에 깊은 영향을 주어 왔다. 그 가장 典型的인 例로서는 清日戰爭에 승리한 결과 확보한 漢冶萍鐵山에 대한 日本의 獨占權과 야와따(八幡)製鐵所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새로이 얻은 植民地 韓國에 대해서도 日本의 經濟的 要求는 다를 바 없었지만 工業發展 및 技術發展의 段階가 낮았던 日本으로서는 다만 韓國의 地下資源中 金과 無煙炭에 대해서만 要求를 가지고 있었다. 즉, 世界貨幣로서의 金은 開發途上에 있었던 日本에 對外 支拂手段으로서 重大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며, 무연탄은 日本海軍의 燃料로서 중요한 戰略的 意義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0년의 鑛業生產 總額 6,067,952圓 중 金銀鑛·金·砂金 및 銀이 차지하는 生產額은 4,836,113圓(그 중 金 및 砂金은 4,596,166圓)으로서 전체의 79.7%를 占했고, 석탄은 388,781圓으로서 전체의 6.4%이며, 이 두 가지가 鑛業生產 總額의 86.1%를 차지하였다. 絶對量으로는 金 및 砂金은 3,753,424g 이었고, 석탄은 78,453톤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에 이르러서는 金銀鑛·金·砂金 및 銀의 生產額은 7,747,302圓으로서 鑛業生產 總額 24,654,463圓의 31.4%를 占하였고, 석탄은 5,327,966圓으로서 21.6%를 차지하여 이 두 가지가 전체의 53.0%를 占하였다. 絶對量으로는 金 및 砂金이 6,186,451g 으로 64.8% 增大되고, 석탄이 884,138톤으로 1,126.9% 늘었다. 그 사이 銅·鉛·硅化鐵鑛·銑鐵·텅스텐·수연광·고령토·형석·명반석·중정석 등 새로운 鑛種이 무수히 開發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금과 석탄이 여전히 鑛業生產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9]. 稼行鑛山에 있어서도 朝鮮總督府社會課가 "工場 및 鑛山의 勞動狀況 調査"에서 밝힌 資料에 의하면 1931년 6월 現在 鑛夫 10名 以上을 使用하는 鑛山의 鑛種關係는 다음의 表 5[10]와 같다.

당시 從業員 수효를 기준하여 가장 큰 광산은 해군 연료창에서 직영하던 평양광업부가광부 1,599名으로 第1位였고, 다음이 東洋合同鑛業會社의 雲山金鑛의 1,409名이고 세째가 大森宅二所有 봉성탄광의 1,127名이었다.

---

(9) 1910年부터 1930年에 이르는 金의 對日本輸出額은 무려 152,521,532圓이 었던 것이 1931~1936年間은 286,700,950圓에 달하였다. 이는 日本 經濟圈內에서의 生產이 不可能한 軍需物資를 海外에서 購入, 備蓄하기 위하여 對外支拂手段인 金이 급격히 요구된 때문이다.

(10) 朝鮮總督府社會課, 『工場及鑛山に於する 勞動狀況調查』 參照.

〈表 5〉 鑛 山 統 計

鑛 種	가행광산수	比 率	鑛 夫 數	比 率
금 은	151	70.0	15,509	51.5
석 탄	34	16.0	9,273	30.8
흑 연	10	5.0	358	1.2
철	9	4.5	4,452	14.7
기 타	9	4.5	501	1.7
합 계	213	1,000	30,093	100

이같이 金과 石炭을 중심으로 답보하던 鑛業生産 活動도 1930年代에 들어 와서는 準戰時 및 戰時經濟體制의 要請에 의해 그 飛躍에 拍車가 加해져 未曾有의 歷史的 段階에 到達[11]하게 되었다. 滿洲事變을 契機로 한 國際情勢의 緊迫과 日本의 國際經濟로부터의 孤立은 日本으로 하여금 自給自足的인 高度·國防國家 建設을 서두르게 하였고, 이에 따라 韓國鑛業이 占하는 地位는 더욱 그 重要性을 더하여 갔다. 鑛業의 開發 如何는 準戰時體制下에 있는 日本産業의 盛衰를 左右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꿈인 新東亞建設에 重大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日本은 1931年 以後 鑛業資源의 적극적 개방을 중요시하였다. 總督 宇垣이 民間의 有力人士와 더불어 韓國의 地下資源開發을 重大 統治政策으로 採用하여 소위 "고울드 러쉬"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米穀生産 위주의 單一經濟體制가 30年初의 農業恐慌으로 대 타격을 받게 된 데 대한 응급적인 補償政策 추구에도 그 원인의 하나가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를 契機로 鐵·石炭·텅스텐·수연 等 國防資材로서 多角的으로 필요한 資源을 개발 확보하고자 한데 보다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1931년 以後 採擇된 鑛業開發政策의 주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3년 1월에 朝鮮 鑛業令을 大幅 改正하여 鑛業에 관한 保護, 奬勵의 一般的 規定을 制定하였다.

둘째, 低品位 金鑛石 賣鑛 奬勵金 交付規則을 制定하여 含金品位 1톤 중 10g 以下의 低品位 金鑛石을 賣鑛하는 매광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예산으로 1톤當 1원 60전 以下의 奬勵金을 交付하였다.

세째, 探鑛 奬勵金 交付規則을 制定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金本位制度의 停止에 따르는 사태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金鑛業에만 局限되었던 것인데, 그 후 高度한 國防 經濟體制 확립을 위하여 金鑛뿐만 아니라 동광·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아연광·철광·유화철광·크롬철광·망간광·텅스텐광·수연광·니켈광·인상흑연·형석 등의 探鑛

(11) 『朝鮮經濟年報』 1939年版, p. 195 參照.

을 目的으로 坑道를 파고자 하는 鑛業權者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예산을 미리 奬勵金을 交付하기로 하였다.

네째, 金鑛業 設備 장려금 교부규칙을 제정하여 금의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권자가 착암기 또는 선광설비를 하고자 할 때 이를 매년 일정한 예산을 들여 장려금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종래 高品位 철광 매장량 2,000萬톤 위주로 개발되어 철광 생산액 60만톤에 불과하였던 한국에서의 철광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製鐵事業法의 一部를 韓國에도 施行하게 되었다. 이 法의 뒷받침에 의해 약 10億톤으로 추정되던 당시의 低品位鑛의 開發이 可能하게 되어 侵略戰爭을 위한 軍需產業의 발달이 촉진되게 되었다.

여섯째, 日本의 產金法을 모방하여 朝鮮產金令이 公布되어 함금광물·사금 등의 製錬, 賣買, 使用에 관한 制限을 加함으로써 金地金의 國家 集中을 꾀하였다.

일곱째, 產金 5個年 計劃을 樹立하여 1942년까지 年產 75톤까지 增大시키려고 하였다.

여덟째, 日本 產金振興株式會社의 朝鮮內 融資를 可能케 하였다.

아홉째, 石炭 增產 5個年 計劃을 세웠다.

열째, 鑛山 勞動者의 보호를 위하여 鑛業警察規則 및 鑛夫 勞務扶助規則을 制定하였다.

열한째, 1938年 5월 12日 國防產業上 가장 중요한 鑛物이 外國에서 輸入되는 弊端을 막기 위해 重要 鑛產物 增產令을 制定하여 國內資源의 적극 개발을 試圖하였다.

以上이 1930年代 日本이 準戰時 經濟體制에 돌입하면서부터 國防 軍需產業을 위하여 不可缺의 原料인 地下 鑛物資源을 확보하려고 한국에서 實施한 政策의 중요한 것이다. 政策的 重點의 태반을 占하는 것은 金의 增產計劃이지만, 그 性格은 종래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즉 종래의 產金政策은 發展途上에 있었던 日本資本主義가 그 開發을 위해 필요했던 對外 支拂能力의 增大라는 순수히 經濟的인 것이었지만, 30年代 初에는 金本位制度의 停止에 따른 經濟變動에 對處하려고 장려되었다가 滿洲事變과 滿洲괴뢰政權의 樹立 以後 準戰時 經濟體制에 돌입하면서부터는 「軍需關係品의 輸入增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시 日本으로서는 무엇보다도 產金의 增加가 필요하였던 때문이다」(12).

1910년부터 1953년에 이르기까지의 主要 鑛產物 生產量은, 〈表 6〉과 같다(13).

---

(12) 前揭年報 1939年版 454面 參照.

(13) 軍需工業化를 위하여 政策的 支援 아래 開發된 地下資源을 鑛種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鐵　　鑛

종래 价川·江西·載寧·殷栗·利原 등에 있던 赤鐵鑛 및 褐鐵鑛 以外에 茂山·端川 襄陽·三

〈表 6〉 主 要 鑛 産 物 生 産 量

광 물 명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금 은 광	10,270	8,847	21,454	16,988	13,411	58,146
금	2,985	5,423	2,831	4,439	5,876	12,401
사 금	768	693	466	253	310	2,309
은	178	683	24	1,504	2,101	39,345
동	—	—	859	424	589	2,170
연	—	—	584,690	484,914	129,740	1,728,130
철 광	140,365	259,157	447,247	351,444	532,497	228,220
유 화 철 광	—	—	—	—	—	55,611
선 철	—	—	85,168	101,933	151,378	147,774
강 철	—	—	—	—	—	97,424
텅 스 텐	—	—	—	—	12	876
수 연 광	—	—	2	9	26	106
흑 연	798	548	11,212	14,078	20,074	45,118
석 탄	78,453	229,121	289,036	622,304	884,138	1,999,153
고 령 토	—	—	1,662	3,709	8,265	33,401
형 석	—	—	—	—	2,297	9,722
마그네사이트	—	—	—	—	—	2,410
명 반 석	—	—	—	—	11,708	81,150
중 정 석	—	—	—	—	6,096	11,027

비고 : 금은광·금·사금·은·鉛은 kg, 기타는 ton

陟에서 대규모의 磁鐵鑛 鑛山이 開發되었다.

石 炭

종래 平壤炭礦에서만 採掘되던 것이 三陟·寧越·和順을 비롯하여 平安南道의 北部炭鑛·咸鏡 南道의 高原 탄전이 개발되었다. 한편 鐵道用炭으로서도 별로 成績이 좋지 않던 有煙炭은 人造石油 製造 原料로서 이용되면서부터는 北韓의 東海岸地帶의 탄전뿐 아니라 安州 沙里院 등지에서도 採掘되게 되었다.

텅스텐 및 水鉛鑛

高速度鋼 및 各種 武器와 工具鋼 製造를 위한 特殊鋼의 原料로서 텅스텐 및 水鉛鋼은 특별한 開發政策의 對象이 되어, 1916년 43개를 기록했던 許可 鑛區數는 1937年의 56개 區에서 1945년에는 219個區로 늘어났고, 水鉛鑛 역시 1916년의 7個區, 1937년의 20개區에서 1945년에는 113個區로 늘어 났다.

亞 鉛 鑛

종래 그 開發이 遲遲不振하였던 亞鉛鑛도 軍需資材인 놋쇠 製造의 不可缺한 材料가 되면서부터는 그 重要性이 再認識되고, 새로운 鑛床의 발견 및 旣存 鑛床의 開發이 括目할 정도가 되었다. 成川, 劍德, 여미산, 日月鑛山 등의 開發은 그 顯著한 例다.

明礬石 및 마그네사이트

軍需·航空事業을 위해 不可缺한 材料인 알루미늄은 그 原料인 보오키사이트의 日本 國內 生産이 없어 韓國에서 生産되는 明礬石·下石 및 半토경암이 적극 개발되었다. 마그네슘의 原鑛인 마그네사이트 역시 吉州·端川地方에서 大量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黑 鉛

電極 原料인 鱗狀黑鉛은 準戰時 經濟體制에 들어서면서부터 需要가 增大되고 특히 中日戰爭 以後에는 日本 國內의 生産이 全無한 까닭에 平北地方 一帶인 吉州, 城津 等地의 黑鉛鑛山이 활기를 띄게 되고, 許可 鑛山도 1910年의 35개 鑛區에서 1930年에는 152개에 不過하였던 것이 1940년에는 393개로 늘어나고, 1945년에는 다시 741개로 增大되었다. 電氣 絶緣

II. 軍需工業建設의 諸樣相

1. 一般的 考察

以上에서 고찰한 사정으로 193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韓國의 工業은 현저하게 발달하였다. 엄밀한 의미의 軍需工業建設은 中日戰爭이 일어난 1937년 以後부터지만, 1930年代부터 시작된 韓國의 工業化는 애초부터 帝國主義日本의 軍事力에 의한 大陸經營을 위한 基礎作業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1930년대에 있었던 一連의 工業化運動을 모두 軍需工業建設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따라서 1937년 以前을 그 準備段階로 보고 그 以後를 本格化 段階로 볼 수 있다.

日本의 植民地政策에 의해 産業動向이 左右되어 왔던 韓國은 侵略戰爭을 위한 軍需工業建設政策의 施行과 더불어 産業에서 차지하는 工業의 地位가 높아가고 이와 同時에 工業

〈表 7〉 韓 國 의 重 化 學 工 業 化

(단위 : 1000원)

구 분		1930	(%)	1936	(%)	1939	(%)	1943	(%)
중화학공업	금 속 공 업	6,040	2.1	33,735	4.6	136,092	9.1	300,000	14.8
	기계기구공업	10,087	3.6	13,503	1.9	53,225	3.5	115,000	5.5
	화 학 공 업	42,056	15.0	195,431	26.7	501,749	33.5	600,000	29.2
	소 계	58,183	20.7	242,669	33.2	691,066	46.1	1,015,000	49.5
경공업	방 직 공 업	45,693	16.3	99,477	13.6	201,351	13.4	345,000	16.9
	요 업	10,460	3.7	21,876	3.0	43,337	2.9	90,000	4.4
	목제품공업	5,546	2.0	9,936	1.3	21,061	1.4	120,000	5.9
	인쇄제본업	8,666	3.1	13,133	1.8	19,373	1.3	24,000	1.1
	식료품공업	82,173	29.2	199,883	27.4	328,352	21.9	400,000	19.5
	가스·전기업	6,432	2.3	39,989	5.5	30,466	2.0	30,000	1.5
	기 타	63,810	22.7	103,842	14.2	163,270	11.0	26,000	1.2
	소 계	222,780	79,3	488,138	66.8	807,206	53.9	1,035,000	50.5
전체공업생산액		280,963	100.0	730,807	100.0	1,498,277	100.0	2,050,000	100.0
성 장 율		100.0		260.1		533.3		729.6	

資料 : 上揭年報 1939年 및 1048年版 參照

體인 雲母 역시 軍需物資로서 1939년 海軍의 請託아래 朝鮮總督府가 斡旋하여 朝鮮雲母開發販賣會社가 發足, 1927년 15개이던 鑛區는 1939년엔 69개, 1945년엔 264개가 되었다. 1927년 처음으로 3개의 鑛區가 許可된 螢石鑛도 알루미늄 原料로서, 그리고 製鋼, 유리, 시멘트 製造用 溶劑로서 需要가 격증되고, 한편으로는 輸入이 어려워지자, 全國 各地에서 鑛床이 속속 발견되고, 또 1939년 低品位 螢石鑛의 淨遊選鑛試驗이 成功하여 工業化되기 시작하자, 鑛區는 1940년엔 91개로 늘고 그 후 1945년까지는 230개로 증대되었다.

의 質的 및 量的인 變化도 현저해졌다. 질적 변화는 工業構造가 高度化하였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의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30년 현재 工業生產額 全體의 20.7%를 차지하는데 不過하였던 重化學工業은 점차 그 比重을 증대시켜 1936년에 가서는 전체의 33.2%를 차지하게 되었다. 韓國工業의 重化學工業化는 그 후 더욱 현저하여 1939년에는 46.1%로 비약하였고, 戰爭末期인 1943년에는 49.5%로 消費財工業과 거의 비등한 크기를 차지하게 되었다.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不過 15年사이에 20.7%에서 49.5%로 2.5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工業成長이다. 獨逸의 호프만 敎授의 工業化段階說에 의하면 가장 幼稚한 工業化段階인 第1段階에 있어서는 生產額을 기준으로 한 生產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比는 1對 5±1.5 즉 1對 3.5~6.5이고, 第2段階에 있어서는 1對 2.5±1이고, 高度로 工業發達이 이루어진 第3段階에 가면 生產財工業 1에 대하여 消費財工業은 1.5±0.5의 比重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英國은 生產財工業의 비중이 11.4%에서 24.9%로 成長하는데, 즉 工業化의 第1段階에서 第2段階로 移行하는데 1851年부터 1901年까지의 50年이 걸렸으며, 驚異的인 工業發達을 했다는 日本도 生產財工業이 12.4%에서 24.9%로 增大하여 工業化의 第2段階에 到達하는데 1900년부터 1925년까지 25년이 걸렸던 것이며, 美國은 生產財工業의 비중이 18.2%에서 39.9%로 변화하여 工業化의 第3段階에 到達하기까지 1850년부터 77년이 걸렸던 것이다. 生產財工業인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1930년에서 1939년에 이르는 10년간에 20.7%에서 46.1%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日帝가 侵略戰을 위한 軍需工業化에 韓國의 人的·物的 資源을 혹독하게 動員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이 급속한 軍需工業化에 따른 聯關產業의 발달로 工業生產額은 앞의 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5년마다 2배씩 불어났다. 1930년을 100으로 한 工業生產指數는 1936년에는 260.1, 1939년에는 553.3, 1943년에는 729.6이 되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사이에 있었던 物價變動을 감안하면 事態는 戰爭經濟的인 陰影에 덮혀 있음을 쉽사리 알게 된다. 즉 30年代前半期동안 停滯했던 價格은 大恐慌의 餘波에서 벗어나 戰爭經濟로 進入함에 따라 급속히 상승하여 인플레氣運을 露呈하기 시작하여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6~39년간에는 年平均 14.8%라는 狂騰相을 보였고 價格이 엄격하게 規制되었던 1940~44년에 있어서도 年平均 8.1%라는 높은 率을 示現하였다. 이것은 戰爭으로 인한 勞動力, 原料, 設備改替의 不足과 戰爭遂行을 위한 非生產的 需要增大라는 두 要因의 作用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表 8의 資料에 의하여 表 7의 生產統計를 디플레이트했을 때 명확히 나타난다. 그것이 表 9이다. 이 表에 의할 때 韓國工業은

〈表 8〉 全 國 都 賣 物 價 의 變 動

年 度	1965年基準指數	指 數	騰 貴 率	年 度	1965年基準指數	指 數	騰 貴 率
1930	0.0292	100.0		1938	0.0429	146.9	19.8
1931	0.0235	80.5	−19.5	1939	0.0503	172.2	17.2
1932	0.0233	80.0	− 0.7	1940	0.0555	190.1	10.4
1933	0.0259	88.7	10.9	1941	0.0575	196.1	3.2
1934	0.0263	90.0	1.4	1942	0.0601	206.1	5.1
1935	0.0290	99.3	10.3	1943	0.0665	227.7	10.5
1936	0.0308	105.4	6.1	1944	0.0741	253.7	11.4
1937	0.0359	122.6	16.3				

資料：韓銀 物價總覽 1968年版서 作成

〈表 9〉 韓國工業의 重化學工業化 (1930年 價格)

(단위：천원)

	1930年	1936年	1939年	1943年
重化學工業				
金屬	6,040	32,006	79,025	134,710
機械	10,087	12,811	30,909	51,639
化學	42,056	185,418	291,375	269,420
小計	58,183	230,235	401,309	455,769
輕工業				
紡織	45,693	94,380	116,928	154,917
窯業	10,460	20,755	25,166	40,413
木製品	5,546	9,427	12,230	53,884
印刷製本	8,666	12,460	11,250	10,777
食料品	82,173	189,642	190,680	17,961
가스電氣	6,432	37,940	17,692	13,471
기타	63,810	98,521	94,814	11,675
小計	222,780	463,125	468,760	303,098
全體生產額	280,963	693,360	870,059	758,867
成長率	100.0	246.8	309.7	270.1

1930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사이에 2.4倍나 커지고 다시 1939년까지는 3倍이상 커졌지만, 戰爭末期에 가까운 1943년에는 1939년의 870,059千圓에서 758,867千圓으로 오히려 縮小再生產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產業別로 볼 때는 金屬, 機械機具 및 化學工業 등 重工業과 軍被服生產을 위한 紡織業 그리고 軍需資材 또는 投資財生產을 위해 중요한 窯業을 제외하고서는 輕工業의 모든 部門에서 生產減退를 보이고 있는 것이 特徵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全體產業生產額 중에서 工業生產額이 차지하는 비율도 역시 軍需工業化의 진전과

더불어 급격히 커져 아래의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에는 전체의 23.9%이던 것이 1937년에는 38.4%로 늘어 났고, 1943년에는 약간 後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産業生産總額 중 37.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國民總生産額 중 製造業의 生産額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에 있어 經常市場價格으로 고작 19.6%에 不過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의 工業化가 얼마나 열광적으로 진행되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表 10〉 工 業 生 産 의 變 化

(단위 : 1,000원)

	1911年		1921年		1930年	
공 산 액	43,528	10.6%	200,535	55.3%	280,963	23.9%
전산업생산액	409,294	100.0%	1,302,484	100.0%	1,176,086	100.0%
	1937年		1939年		1943年	
공 산 액	959,308	32.7%	1,498,277	38.4%	2,050,000	37.1%
전산업생산액	2,937,766	100.0%	3,902,077	100.0%	5,526,164	100.0%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이 같은 工業化의 진전에 따라 工場數 및 從業員數도 해마다 증대되어 表 10과 같이 1930年에 4,261개 工場에 101,943名의 工業勞動者가 종사하던 것이, 1943년에는 工場數

〈表 11〉 工場 및 工業 勞動者趨勢

연 도	공 장 수	지 수	종 업 원 수	지 수
1930	4,261	100.0	101,943	100.0
1933	4,838	113.5	120,320	118.0
1936	5,927	139.1	188,250	184.6
1939	6,952	163.1	270,439	265.2
1943	14,856	348.6	549,751	539.2

資料 : 上揭年報 1939年版 및 1948年版 參照

〈表 12〉 工 場 規 模 別 比 重

(1940年 現在)

	공 장 수	종 업 원 수	생 산 액
대 공 장(100명 이상)	4.7%	51.6%	69.0%
중 공 장(100명 미만)	13.6%	22.3%	14.5%
소 공 장(30명 미만)	81.7%	26.1%	16.5%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는 14,856개 공장으로 3.5배가 된 데 비하여, 從業員數는 549,751名으로 5.5배가 되었다. 종업원 수효의 增加率이 工場 수효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은 단위 공장당 從業員數가 커간다는 사실, 즉 工業化의 진전이 大企業을 中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工業化가 重化學工業 中心으로 진척되는 당연한 귀결이기는 하나, 어쨌든 한편으로는 工業 企業經營이 堅實化되어 간다는 것도 아울러 의미한다. 1940년에 있어서의 工場規模別 비중에서 이를 살펴보면 위의 表 12와 같다.

그러나 이같이 工場總數의 4.7%에 불과한 大工場이 工業勞動者의 51.6%를 雇傭하여 工業總生產의 69.0%를 生產하고 있다는 사실은 植民地로 轉落한 韓國國民의 福祉를 위하여 무조건 환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앞서 會社令에 의하여 商業資本 및 土地資本의 형태로 存在하던 民族資本의 產業資本으로의 成功的인 轉換이 沮害당하여, 1921년 現在 總會社數의 15.5%, 會社資本總額 중 4.3%를 차지하고 있던 民族資本은 1929년에는 비록 會社 총수효의 19.3%가 되는 362개사로 3배가 되기는 하였지만 會社資本 총액 중 民族會社 資本이 차지하는 비는 不過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零細性을 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民族會社의 一社當 平均 資本額은 1922년의 533,000원을 고비로 零細化의 길을 걸어, 1929년에는 117,000원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1929년 당시 韓國의 會社平均 資本金이 164萬원이었다는 사실과 對照한다면 韓國民族會社의 資本力이 얼마나 零細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與件 下에서 工場規模가 大規模化하고 大工場의 生產額이 全體의 69.0%를 차지하며 종업원 30名 未滿의 小工場이 工場數의 81.7%를 차지하면서도 生產額의 16.5% 밖에 生產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零細企業에 매달린 民族產業이 점차 淘汰되어 간다는 悲劇的 趨勢를 의미하는 것이다. 食料品工業·木製品工業·紡織業·機械器具工業 등을 토대로 한 韓國資本에 의한 中小工業은 全面的 軍需工業化라는 韓國經濟의 巨大한 質的 轉換過程에서 軍需工業의 下請工場으로 大量 轉換할 수 없었던 까닭에 一路凋落을 免할 수 없었던 것이며, 더구나 "企業整備令에 의한 強制的 整理로 民族產業은 더욱더 消滅되어 갔던 것이다."(14)

이같이 급속하고도 견실한 工業化는 侵略戰爭의 準備 및 遂行을 위하여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化學工業의 발달은 눈부신 바가 있었다. 化學工業의 生產額은 1930年에는 24,676,000원이던 것이 1933년에는 51,992,000원으로 불과 3年에 2배로 늘었다가 1936년에는 다시 162,462,000원으로 1933년에 비하여 3배가 되었으며, 1939년에는 501,749,000원이 되어 1936년에 비하여 또 다시 3배가 되었다. 1930년에 시작하여 불과 10년 동안에 무려 20.3배나 成長한 것이다. 化學工業의 相對的 비중 역시 현저하게 높아졌으니, 1930년만 해도 製造工業 總生

(14) 上揭年報 1939年版 210~211面 參照.

産額 중 化學工業 生産額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33년에는 13.5%로 커졌으며 1936년에는 22.9%로 늘어났고 1939년에는 33.5%로서 全體工業生産額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여 종래 第一位를 줄곧 차지하여 왔던 食料品工業을 壓倒하고 首位에 진출하였다. 1943년에는 다소 그 相對的 비중은 줄어 들고 오히려 金屬工業의 진출이 현저하였음은 앞의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化學工業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전히 第一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 오면서 시작되고, 특히 1937년의 中日戰爭의 勃發을 契機로 급속도로 추진된 韓國經濟의 工業的 再編成으로 말미암아 韓國經濟의 構造는 크게 變動되었다. 1930년에 있어 農業 62%, 林業 5%, 水産業 7%로 農水産業의 비중이 74%이고, 이에 비해 鑛業이 2%, 工業이 24%, 都合 鑛工業의 비중이 26%이던 經濟構造는 1936년에는 農業이 52%, 林業이 여전히 5%이고 水産業 역시 여전히 7%로서 農林·水産業의 비중은 64%로 줄고, 그 대신 鑛業이 5%로 2.5배 커지고 工業이 31%로 成長하였다가, 1939년에는 農業이 다시 현저히 下落하여 42%를 차지하고 林業은 여전히 5%이며 水産業이 다소 커져 18%가 되어 農林·水産業의 全體로서의 비중은 55%로 크게 줄어들고, 그 대신 鑛業이 6%, 그리고 工業은 39%로서 農業生産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産業 諸部門의 總生産額도 1930년의 117,600萬원에서 1933년에는 152,000萬원으로 늘었고, 1936년에는 233,200萬원으로 급격히 증대되었다가, 1939년에는 무려 390,200萬원으로 비약적 성장을 하였고, 1943년에는 결국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2,600萬원으로 증대되었다.

1930년대의 급격한 軍需工業化가 韓國經濟의 工業化를 촉진시킨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日本經濟의 一環으로서의 工業生産力 擴充을 圖謀한 것이었고 특히 畸型的으로 日本帝國主義의 戰時態勢에 即應한 것이었으므로 한국 자체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을 中核으로 하는 日鮮滿의 物資動員計劃에 의해 規制되고 朝鮮工業의 發展計劃은 日本의 企劃院이 立案하고 日本의 國家總動員法이 韓國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15) 따라서 이같이 日本의 侵略戰爭 目的을 위한 工業化가 종래와 같이 한국의 특수한 立場, 말하자면 韓國人民의 經濟的 需要에 適應할 수 있는 方向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歪曲된 방향으로의 工業化가 미친 不美한 歸結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韓國工業의 낮은 自給率이다. 즉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로서의 工業 自給率은 72.7%에 불과하며 급격한 발전끝

(15) 旗田巍 : 前揭書 220面 參照.

에 第一位를 차지하게 된 化學工業의 自給率도 82.8%에 불과하며, 印刷製本業 같은 工業은 7.8%에 불과하다. 植民地 工業의 均衡있는 발전을 36年의 強占期間 중 처음 20年 동안이나 적극적으로 妨害하여 오던 日本帝國主義가 世界를 상대로 한 侵略戰爭의 遂行

〈表 13〉 韓 國 工 業 製 品 自 給 率

(1941년)

공 업	자 급 률(%)	공 업	자 급 률(%)
금 속 공 업	59.5	재 제 목 제 품 공 업	76.1
기 계 기 구 공 업	24.7	인 쇄 제 본 업	7.8
화 학 공 업	82.8	식 료 품 공 업	95.1
방 적 공 업	55.9	기 타 공 업	74.2
요 업	68.1	평 균	72.7

資料：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參照

을 위하여 工業的 立地條件이 지극히 有利함이 밝혀진 植民地 韓國을 侵略戰爭 目的을 위해 最大限 이용하려 한데서 생긴 歪曲狀을 이 資料는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重化學工業의 建設

193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日本經濟는 準戰時體制를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韓國工業의 發展方向이 重化學工業爲主로 質的 變換을 시작했다. 이러한 傾向은 1937年의 中日戰爭을 契機로 더욱 促進되었다함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다. 이러한 傾向은 다음 資料에서도 明白히 나타난다. 다음의 表 14와 表 15에 의하면, 이 準戰時體制下에 있었던 1930年부터 1936年 사이에는 金屬工業·機械器具工業 및 化學工業 等 重化學工業部門은 金屬工業이 558.5%로 가장 급속한 發達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部門 全體의 成長은 1930年의 58,183,000원에서 6年 후인 1936年의 242,669,000원으로, 總體的으로는 1930年을 100.0으로 할 때 417.0, 年平均 69.5%의 發展速度를 示現하였다. 이는 工業生產 總額이 이 期間 중 100에서 260.1로 年平均 43.3% 밖에 成長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놀랄 만큼 급속한 發展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日本經濟가 戰時體制로 들어간 1937年 以後에 있어서는 重化學 工業은 더욱 놀라운 發展을 보였다. 즉, 1936年의 生產額 242,669,000원이 불과 3年 남짓한 1939年에는 691,066,0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1936年을 100.0으로 하면 1939年은 284.7로서 年平均 94.9%라는 경이적인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太平洋 戰爭에서 敗色이 농후해지고 軍事力과 아울러 經濟力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1943年頃까지도 어느 程度 繼續되었다. 1936年부터 1943年까지의 重化學工業 成長率은 年平均 59.7%라는 높은 數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936年부터 1939年 및 1943年까지의 工業生產額의 增加가 1936年을 100.0으로 하였을 때 각기 205.0 및

〈表 14〉 重 化 學 工 業 의 成 長

(단위 : 1000원)

연 도	금속공업	지 수	기계기구공업	지 수	화학공업	지 수
1930	6,040	100.0	10,087	100.0	42.056	100.0
1931	6,545	108.3	7,929	78.6	42,599	101.3
1932	6,232	103.1	8,313	82.4	49,555	117.8
1933	9,108	150.8	7,513	74.4	70,519	167.6
1934	9,661	160.0	9,481	94.0	91,151	216.7
1935	26,989	446.8	11,525	114.2	147,834	351.5
1936	33,735	558.5	13,503	133.8	195,431	454.7

資料 : 上揭年報 參照

〈表 15〉 重 化 學 工 業 의 成 長

(단위 : 1000원)

연 도	금속공업	지 수	기계기구공업	지 수	화학공업	지 수
1936	33,735	100.0	13,503	100.0	195,431	100.0
1937	50,706	150.5	16,564	122.7	304,948	156.0
1938	91,966	272.6	26,798	198.5	352,819	180.5
1939	136,092	403.4	53,225	394.2	501,749	256.7
1943	300,000	889.3	115,000	866.5	600,000	307.0

資料 : 上揭年報, 1939 年版 및 1941, 1942, 1948 年版 參照

280.5 로서 1936 年부터 1939 年까지의 工業全體의 平均 成長率이 年 68.3%였고, 1943 年까지의 7 個年間의 平均 成長率이 40.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놀라울 만큼 빠른 成長을 단시일에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重化學工業의 驚異的 成長은 이를 1930 년을 基準으로 한 不變市場價格으로 고찰하더라도 별다른 差異가 없음은 이미 表 9 에서도 본 바와 같다. 이제 이를 다시 年度別로 또 部門別로 고찰한 것이 表 16 와 表 17 이다. 1930 년에서 1943 년에 이르기까지 重化學工業部門의 생산액은 58,183 千圓에서 642,118 千圓으로 무려 11 倍이상 늘어 났으며, 年平均 實質成長率은 21.6%를 기록하고 있다. 部門別로 보더라도 金屬工業은 1930 년의 6,040 千圓에서 1943 년의 134,710 千圓으로 22 倍나 그 生產額이 커졌으며 化學工業도 42,056 千圓에서 455,769 千圓으로 11 倍가량 커졌으며 그 成長이 가장 완만한 機械工業에 있어서도 그 生產額은 1110,087 千圓에서 51,639 千圓으로 5 倍이상 커졌다.

重化學工業의 實質成長率을 보면, 1930 年代의 前半에 있어서는 1931 년의 21.8%에서 大體로 遞增되는 趨勢를 보여 1935 년에는 比前年 53.1%라는 놀라운 成長率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後半期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차츰 遞減하여 1938 년에는 5.7%로 鈍化되고 있

으며 1940年代에 들어와서는 同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두 期間의 成長率을 비교하면 1931~35년간에는 25.1%이며 1936~1943년에는 18.2%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1937년의 中日戰爭과 1941년의 太平洋戰爭을 계기로 하여 國外로부터의 重化學工業生産을 위한 諸般의 物質的 手段, 예컨대 原料나 補助原料 또는 일부분의 施設財 確保가 어려워진 것과, 또 戰爭末期에 갈수록 勞動 특히 熟練勞動의 공급이 隘路에 逢着하기 시작한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表 16〉 重 化 學 工 業 의 成 長

	經常價格으로의 生産額	디플레이터	1930年價格으로의 生産額	指 數	實質成長率
1930	58,183	100.0	58,183	100.0	—
31	57,073	80.5	70,897	121.8	21.8
32	64,100	80.0	80,125	137.7	13.0
33	87,140	88.7	98.241	168.8	22.6
34	110,293	90.0	122,559	210.6	24.9
35	186,348	99.3	187,662	322.5	53.1
36	242,669	105.4	230,231	395.7	22.7
37	372,278	122.6	303,652	521.9	31.8
38	471,583	146.9	321,022	551.8	5.7
39	691,066	172.2	401,309	689.7	25.0
43	1,015,000	227.7	642,118	1,103.6	60.0

〈表 17〉 重 化 學 工 業 의 部 門 別 成 長

(1930年 價格)

연 도	金屬工業	指 數	機械工業	指 數	化學工業	指 數
1930	6,040	100.0	10,087	100.0	42,056	100.0
31	8,130	134.6	9,849	97.6	52.918	125.8
32	7,790	128.9	10,391	103.0	61,944	147.3
33	10,268	170.0	8,470	83.9	79,503	189.0
34	10,734	177.7	10.545	104.5	101,280	240.8
35	27,179	450.0	11,607	115.0	148,876	353.9
36	32,006	530.0	12,811	127.0	185,418	440.9
37	41,408	685.5	13,510	133.9	248,734	591,4
38	62,604	1,036.5	18,242	180.8	240,176	571.0
39	79,025	1,308.3	30,909	306.4	291,375	692.8
43	134,710	2,230.0	51,639	511.9	455,769	1,083,7

이제 侵略戰爭을 위한 軍需工業化의 樣相을 우선 그 主軸을 이룬 重化學 工業을 중심으로 各 産業 部門別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化學工業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풍부·저렴한 電力資源, 多樣하고 良質인 地下資源 및 저렴하고 풍부한 勞動力의 存在 等 工業化를 위하여 有利한 條件을 갖추었던 韓國은 滿洲事變을 契機로 한 日帝의 準戰時體制 樹立에 따른 積極的인 工業政策으로 급속한 工業化의 길을 걷게되었다. 이런 물결을 탄 工業化가 重化學工業에 偏重되고, 特히 化學工業 및 金屬工業을 主軸으로 삼았던 것은 獨立된 經濟單位로서 韓國工業을 均衡있게 發展시키고자 한데서 韓國의 工業化가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데서 오는 당연한 歸結이다. 이는 日帝의 侵略的 野望의 達成을 위하여 植民地 韓國의 人的 및 物的 資源을 最大限度로 收奪하여 利用하고자 하는 底意에서 나왔던 것이므로 重化學工業의 不均衡的 發展도 이러한 分析視角을 떠나서 評價할 수 없다.

"본시 化學工業은 本質的으로 材料의 工業이며 基礎工業일 뿐만 아니라 化學工業 製品生產 內容의 多樣性은 다른 產業部門 및 같은 工業部門 간의 均衡있는 發展을 要求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化學工業은 有機的 結合性과 綜合性을 갖는 것이 特性이며, 또 有機的 結合性을 利用하여야만 그 成果를 발휘할 수 있고 自主性을 갖게 된다. 그러나 韓國의 化學工業 發展은 化學工業 全體의 均衡 發展을 展開하지 못하고 水力電氣를 基礎로 하는 電氣化學 工業, 特히 肥料·爆發物 工業 等이 跛行的으로 發展한데 불과했다. 그 當時까지도 化學工業의 根幹을 이루던 藥品工業 等은 지극히 低位이고 化學工業用의 機械器具 및 裝置의 製造도 落後되어 그 供給을 주로 日本에 依存하는 歪曲을 노정하게 되었다."[16] 機械器具 工業의 自給率이 印刷 製本業의 뒤를 이어 24.7%로 第2位를 記錄하고 있다는 것은 化學工業이 歪曲되게 統制的으로 發展하였다는 한 傍證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本質的인 缺陷에도 불구하고 化學工業은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를 중심으로 급격한 成長을 시작하였다.

化學工業은 이처럼 量的인 面에서 發展과 아울러 質的인 向上도 또한 이룩하였다. 즉 企業形態別로 化學工業의 生產額을 1936年과 1939年에 관해 對比시켜 보면, 1936年에 있어 化學工業 生產額 195,429,000원 중 近代的인 民間工業에서 生產된 것은 162,462,000원으로서 全體의 83.1%를 차지하였고, 官營工場은 1,437,000원으로 0.8%를 차지하였으며, 前近代的인 家內工業에서의 生產額은 31,530,000원으로 全體의 16.1%라는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39年에 있어서는 化學工業 生產額은 501,749,000원으로 2.5倍가 되었는데 그 중 近代的인 民間工場 工業에서의 生產額은 458,

(16)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p. I—106~7

977,000원으로서 全體의 91.4%를 차지하게 되었고, 한편 官營工場에서의 生產額은 2,981,000원으로서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前近代的이며 非效率的인 家內工業에서의 生產額은 39,791,000원으로서 全體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企業形態別로 化學工業의 成長을 보면 앞의 表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近代的인 工場工業이 가장 놀라운 發展을 보이고 있다.

化學工業의 質的 構成이 相對的으로 優秀하다는 것은 그 企業形態別 生產額 構成을 다른 產業의 平均的 構成과 比較해 볼 때 즉시 알 수 있다. 즉 1936年에 있어 近代的 工場工業의 生產額은 工業生產額 全體의 61.2%에 불과 했고, 官營工場의 그것은 7.5%였으며 前近代的인 家內工業의 生產額은 31.2%나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化學工業에 있어 工場工業生產額의 比는 3.6%로서 가스 및 電氣業의 100.0%, 印刷製本業의 98.6%, 窯業의 86.9%, 金屬工業의 84.0%에 이어 諸工業部門 중 第5位였다. 그러던 것이 1939年에 와서는 民間工場工業에서의 生產額은 全體의 72.8%가 되고, 官營工場의 그것은 5.2%가 되었고 家內工業의 그것은 21.9%가 되었는데 化學工業에 있어서의 近代的 工場工業의 生產額의 比는 94.1%로서 가스 및 電氣業의 100.0%, 金屬工業의 96.7%, 印刷·製本業의 94.8%에 이어 第4位로 進出하였다. 가스 및 電氣業과 印刷·製本業이 갖는 特殊한 性格에 비추어(그 두 產業에 있어 家內工業의 生產額은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0이다) 이를 除外한다면, 化學工業은 金屬工業과 아울러 가장 近代的인 形態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規模別로 보더라도 100名 미만의 從業員을 가진 中小工場의 比는 1939年에 있어 全體 工場數의 95.3%를 차지하고 있는데, 化學工業의 中小工場數는 全體의 94.3%이고 從業員 100名 이상의 大工場이 5.7%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工場 生產額에 있어서 從業員 200名 이상의 大工業이 차지하고 있는 比率은 化學工業에서는 73.6%로서 工業 全體에 있어서의 大工業의 平均인 61.5%보다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植民母國인 日本과 植民地 韓國의 化學工業이 製造工業 全體에서 차지하는 相對的 地位를 比較해 보면 1936年에 있어 日本의 化學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17.2%이 였었고

〈表 18〉 化 學 工 業 의 質 的 向 上

(단위 : 1000원)

년 도	민간공장	%	관영공장	%	가내공업	%	합 계
1936	162,462	83.1	1,437	0.8	31.530	16.1	195.429
지 수	100.0		100.0		100.0		100.0
1939	458,977	91.4	2.981	0.6	39,791	7.9	501,749
지 수	259.4		208.1		126.2		256.7

1939年에는 다소 줄어 17.1%에 머물러 있음에 반하여, 韓國에서는 1936年의 26.7%에서 1939年에는 33.5%로 飛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現象은 外形的으로는 급속한 工業化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產業의 聯關的 發展에서 斷切된 채 化學工業만 成長했다는 것은 결국 侵略戰爭을 遂行하기 위한 軍需工業建設을 植民地 희생 위에 세우려는 帝國主義的 收奪의 一端을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化學肥料工業

1930年 1月에 建設된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의 興南肥料工場은 우리나라 化學肥料工業의 嚆矢로서, 이를 契機로 짧은 期間 중에 많은 工場이 建設되었다. 興南肥料工場의 硫安 生產能力은 年間 50萬톤으로서 東洋 最大를 자랑하였으며 뒤이어 日本製鐵株式會社의 兼二浦製鐵所에서는 副產物의 處理를 目的으로 하는 硫安工場을 세웠다. 그 後 1939年에는 三陟開發株式會社의 石灰窒素肥料工場이 建設되고, 1940年에는 朝鮮化學工業株式會社의 順天工場에서 尿素石膏가 生產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日本產業化學工業會社에서 南浦에다 過燐酸石灰工場을 세웠다. 다시 1941年에는 朝鮮化學肥料株式會社가 仁川에 그 역시 過燐酸石灰工場을 세웠고 王子製紙會社가 木浦에 明礬石칼리工場을 新設하여 1945年부터 鹽化칼리를 生產하게 되었다. 이들의 施設能力을 보면 興南窒素의 50萬톤을 위시하여 三陟窒素工場이 3萬톤, 朝鮮化學의 順天工場이 尿素石膏 3萬톤, 仁川工場이 過燐酸石灰 18,000톤, 日本產業의 南浦工場이 硫安 10萬톤, 그리고 그 밖의 大小工場에서 生產한 것을 모두 合하면 約 80萬톤의 化學肥料가 生產되었었다.

石灰液化工業

化學工業의 最大 推進體였던 朝鮮窒素肥料會社는 오랜 企業實驗 끝에 石炭液化에 착수하였다. 1935年 3月 朝鮮窒素의 姉妹會社로서 設立된 朝鮮石炭工業會社는 永安에 工場을 세워 石炭液化工業을 시작하여 揮發油·重油·파라핀·반제 코크스·메타놀·포르말린·인조수지·塗料 等을 生產하였다. 이 밖에 石炭低溫乾溜工業 家庭用 콜라이트 및 타르를 生產하던 日鮮鑛業株式會社가 龍峴工場을 가지고 있었다.

石油精製工業

1934년 7월의 石油業法의 施行을 전후하여 한 두 개의 精油工場이 생기던 韓國에서는 1935年 3月 特殊會社로서 朝鮮石油株式會社가 元山에 精製工場을 세우고 立石商店도 역시 釜山에 製油工場을 세워 이 둘로 統合이 이루어졌다. 生產物은 朝鮮石油는 重油, 가솔린, 燈油, 輕油, 機械油이며, 立石商店은 輕油 및 機械油를 精製하였었다.

油 脂 工 業

東海岸 一帶에서는 정어리를 原料로 하는 魚油 製造工業이 크게 일어났으나 對家內工業的인 小工場에 不過하였으며 그 工場數조는 大略 400餘를 헤아렸다. 이들 魚油를 원료로 하여 朝鮮窒素肥料會社가 硬化油 製造工業을 시작하게 된 후 朝鮮窒素 이외에도 朝鮮油脂會社 및 朝鮮協同油脂會社가 設立하게 되었다. 製品으로서는 硬化油 이외에도 다시 이를 分解, 加工한 油脂加工品, 脂肪酸, 비누, 글리세린 등이 있다. 朝鮮窒素肥料는 그 밖에도 콩기름에서도 硬化油를 製造하였다. 植物性 油脂工業으로는 목포에 세운 日華製油株式會社와 부산에 세운 朝鮮製油株式會社가 있어 각각 棉實油를 製造했는데, 그 原料 處理能力은 6萬톤으로서 약 6천톤의 製油能力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질소비료회사는 콩기름공장을 硫安製造와 아울러 차렸다. 이 밖에도 滿洲產콩을 원료로 專業的으로 콩기름을 製造하던 것으로는 淸津의 북선유지회사 및 신의주의 日陞公司가 있었다. 또한 澱粉製造의 副產物로서 옥수수에서 菜油하는 工場과 아마인油 製造工場이 각기 日本곡산회사 및 제국제마회사에 의해 건설되었다.

비 누 工 業

硬化油工業이 발달하자 종래엔 中小規模의 工場에 의하여 세탁비누를 주로 생산하던 비누공업은 활기를 띄어 각종의 비누를 製造하게 되었다. 비누工業 역시 最大의 生產處는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였다.

火 藥 工 業

植民地 統治를 위한 產業政策 때문에 火藥工業은 한국에서는 法的으로 禁止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滿洲事變 이후의 政治情勢의 緊迫과 北部中國에 대한 日本의 軍事作戰 등 侵略戰爭을 위한 軍事的 見地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鑛工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르는 產業戰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韓國에서도 그 제조를 許可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6년에는 朝鮮窒素火藥株式會社 興南工場에서 다이너마이트·硝安·爆藥을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中日戰爭이 勃發하면서부터는 朝鮮火藥株式會社 鳳山工場, 朝鮮아사노(淺野)아리트株式會社 海州工場, 朝鮮油脂株式會社 富川工場, 미쓰비시(三菱)鑛業株式會社 茂山工場에서도 각각 酸素·爆藥 製造에 착수하였다.

고 무 工 業

고무신 製造를 위주로 하는 고무공업은 그 성질상 中小企業에 適合하였고, 또 技術水準도 역시 手工業的 段階의 것이어서 한국인 기술자의 진출이 용이했다. 이 때문에 1920년 韓日合資로 시작된 大陸고무공업소의 設立을 契機로 他分野에서 排斥當한 零細 民族資本이 이 部門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太平洋戰爭의 시작과 더불어 原料 統制가 시작되

고 또 이를 契機로 日帝가 쓴 企業合併政策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말에 약 60을 헤아리던 고무공장은 1945년 終戰 당시에는 33개로 줄었으며 民族資本의 성격도 엷어져 갔다.

皮 革 工 業

皮革工業의 歷史는 1900년대부터이지만 발달된 鞣皮技術로 作業하는 大規模皮革工業의 出現은 1911년 9월 朝鮮皮革工場의 建設에서 시작된다. 그 후 1917년 6월에 大田皮革工場이 設立되었고, 解放 당시까지는 20餘個의 大小 皮革工場이 생겼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前述한 朝鮮皮革 및 大田皮革 이외에 裕豊皮革을 들 수 있다. 이들 皮革工場은 日本의 侵略戰爭擴大에 따라 대부분 軍靴製造를 위한 軍需工場으로 이용되었고, 皮革製品은 強力한 統制下에 들어 있었던 까닭에 一般 民間人의 需要에는 별로 寄與하지 못했다. 解放 당시 牛皮生產量은 年間 27萬 乃至 30萬매였다.

알코올 工業

日帝末期 陸軍의 支援 아래 燃料國策에 이바지하고자 시작된 이 工業은 압록강流域을 中心으로하는 豊富한 톱밥을 원료로 하여 급속한 發展을 보였고 그후 濟州道에 감자·고구마 등 澱粉質原料를 使用하는 工業用酒精工場의 建設로 더욱 박차를 加하였다. 즉 1939年에는 東洋拓殖株式會社 系統의 朝鮮無水酒精工場이 신의주에 建設되어 無水酒精을 生產하기 시작했고, 그 5年후인 1944年에는 그 역시 東拓會社가 濟州道에 酒精工場을 세워 戰略的인 立地條件下에 저렴한 原料를 이용하여 工業用酒精을 生產했는데, 製品은 모두 日本軍의 軍需燃料로서 사용되었다.

製紙 및 펄프 工業

왕자제지회사의 新義州工場 및 북선제지화학공업회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製紙工業은 戰爭의 進行과 더불어 日本施設의 韓國移動을 보게 되어 해방 당시 모두 21個의 製紙工場이 建設되었다. 그 중 북선제지 群山工場과 왕자제지 新義州工場 및 鍾淵實業 新州工場은 現代的인 長網式抄紙機를 갖춘 近代工業이었고, 나머지 18個 工場은 舊式의 丸網式抄紙機를 가지고 있었다.

工業藥品 製造工業

1930年代에 들어서면서 조선질소비료회사 계통의 자본에 의하여 유산, 가성소오다, 염산, 표백분, 탄화석회 등 공업약품의 제조가 거의 獨占的으로 이루어졌었다. 그후 1940年代에 들어서면서 일산화학공업, 아연화학흥업회사 등이 化工藥品 製造에 加擔하게 되었다.

(2) 金 屬 工 業

1943年度 金屬工業의 生産額은 위의 表 7에서처럼 3億원이었다. 이것은 전체 공업생산액 20억 5천만원의 14.8%를 차지하여 順位로는 化學工業·食料品工業 및 紡織工業에 이어 4位에 位置하고 있다. 이와 같은 金屬工業은 表 14 및 15表에서 본 바와 같이 군수공업화의 중심적 역활을 한 화학공업의 발달보다도 훨씬 빨랐다. 즉 1930年~1943年間에 化學工業 生産額이 14.2배가 된 데 비하여 金屬工業은 무려 49.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急速한 金屬工業의 發達은 비단 量的 擴大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質的高度化도 상당한 정도까지 수반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금속공업은 製鐵工業 및 金製錬工業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속공업으로서 輕金屬工業도 또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모두가 輕金屬工業이 갖는 軍事的 重要性 때문에 특히 軍需工業으로 開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속공업은 그 대부분이 제1차 金屬製造業部門에 속하는 것이었지, 금속제품 제조업의 併行的인 發展이 없었다는 데서 그 質的 高度化에는 일정한 限界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원래 한국의 금속공업이 日本資本主義 發展의 부수물로서 특히 日帝의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한 군수공업의 생산증강을 위하여 건설된 것이어서 금속공업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에 있어 모두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製鐵工業, 특히 선철을 위시한 素材工業의 跛行的 發展에 그치고, 金屬製品 製造業의 발전은 미미하였다. 이러한 것은 1944년의 금속공업 생산실적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즉 그 해의 금속공업생산 중 銑鐵生産은 약 44만톤으로서 전체의 80%를 점하고 鋼鐵生産額은 10만톤 미만으로서 전체의 20%에

<表 19> 金 屬 工 業 의 成 長 <단위 : 1,000원>

	절 대 액			상 대 비 (%) (전체공업에 대한 것임)		
	1930	1936	1939	1930	1936	1939
생 산 액	15,263	28,365	136,092	5.8	4.0	9.1
공 장 수	231	259	295	5.1	4.3	4.2
직 공 수	4,542	6,787	17,875	5.4	4.6	6.6

資料 : 前揭年報 1939年版 및 1941, 1942年版 參照

未達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鐵鋼材는 그 90%가 日本에 輸出되었던 것인데, 이는 軍需生産을 위한 원래의 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日帝의 侵略戰爭을 爲한 軍需工業建設의 덕을 입은 軍需工業으로서의 금속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기는 하였지만, 군수공업건설은 技術的 水準이 낮은 素材生産部門에 그치고 高度한 技術水準을 必要로하는 金屬製品 製造業 및 機械器具 製造業은 여전히 한국 내에서의 建設이 꺼려졌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跛行的 發展은 일본의 諸工業과의 技術的 관련하에서는 可能했던

것이나, 하나의 독립적 단위로서의 한국공업을 생각한다면 가위 치명적인 缺陷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20년이 지나도록 한국이 자주적인 공업발전을 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유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1944년의 자료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의 금속공업은 銑鐵위주 生産構造를 갖고 그나마 생산된 선철도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었던 것이다. 1944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철 수출은 168,319,000원으로 쌀 수출액 177,038,000원에 다음가는 제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중요 금속공업의 생산능력을 보면 表 21과 같다.

<表 20> 1944년도 金屬工業 生産構造 및 對日本 輸出 <단위 : 톤>

구 분	생산계획(A)	생산실적(B)	대일본수출(C)	C/B
선 철	540,000	435,118	388,821	89.3%
보통강강재(原板一般材)	101,000	72,025	50,730	70.4
특수강재	25,000	20,249		
단주강(鍛鑄鋼) 보통강단재	4,000	2,725		
단주강(鍛鑄鋼) 보통강주강	15,000	12,840		
단주강(鍛鑄鋼) 특수강주강	3,800	3,688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參照

<表 21> 主要金屬工業의 生産能力 <단위 : 톤>

종 류	공장수	생산능력	종 류	공장수	생산능력
주 강	7	24,500	전기동	—	1,200
강 괴	1	5,000	洋 釘	—	18,620
봉 강	3	24,000	銅 線	—	540
강 판	1	10,000	유 기	—	1,500
단주강	4	4,700	鐵板 및 鋼板	—	500
특수강	4	2,350	알루미늄제품	—	4,000
선철주물	—	30,000	마그네슘제품	—	200
강 관	—	1,000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日帝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소 다양한 내용을 가진 금속공업을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앞서도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로써 가능한 것에만 국한시켰고, 고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본토에만 세워 한국에서 銑鐵을 수입하도록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그나마 기술자의 고용도 일본인을 우선시켰다. 1943년 6월 현재의 금속공업 기술자 관계를 보면 한국인 기술자 143명에 대하여 일본인 기술자는 1,240명으로 한국인 기술자의 비는 11.3%에 불과하였다. 冶金등 고도한 기술부분에서 한국인

기술자가 적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製 鐵 工 業

1918년에 日本製鐵株式會社 兼二浦제철소의 건설에서 시작된 제철공업은 30년대에 들어와서는 日本高周波重工業株式會社 성진공장 및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청진광업소의 건설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 兼二浦제철소는 150톤 高爐 2基로 선강 일관작업에 의한 年産 5만톤의 강재생산을 할 수 있었으며, 일본고주파성진공장은 고주파 및 저주파 전적생산에 의한 特殊鋼合金鐵을 생산하여 톤당 당시 싯가로 25만원의 特殊鋼도 만들었다. 청진광업소는 粒鐵 생산방식에 의한 회전로 작업을 1939년에 開始하였다. 그후에도 한국에는 계속적으로 철강공장이 건설되었는데, 兼二浦제철소의 규모와 비등한 日鐵清津工場이 1942년 5월에 무산철광과 密山炭을 이용하여 선강 일관작업을 시작했으며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흥남제련소가 1941년의 '밧세'법에 의한 선강 일관작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朝鮮理研金屬株式會社 仁川工場(현재의 大韓重工業 仁川工場)이 발족하였는데, 이는 이연식 회전로에 의한 粒鐵 生產方法으로 선강 일관작업을 목표로 설립된 것이다. 이같은 수개 공장 이외에도 1941년에는 特殊鋼 생산을 목적으로 미쓰비시철강주식회사와 조선제철주식회사 평양공장이 電力과 輸送上의 好條件을 택하여 평양과 진남포 일대에 설립되었고, 소형 용광로에 의한 입철 생산방법으로 와다나베(渡邊)鑄鋼會社가 해주 및 평양에 세워졌으며, 같은 방법으로 加波제철공장이 부평에, 소평광업소가 사리원에 각각 건설되었다.(17)

金 製 錬 工 業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金製錬工業은 日本鑛業株式會社의 南浦工場이 唯一한 것이었다. 그러나 金生產의 增加와 더불어 금제련공업이 크게 일어나서 조선광업개발회사, 조선제련회사, 스미또모(住友)합자회사 제련소, 미쓰보시(三星)광업회사 등에서 원산, 흥남, 용암포, 해주, 장항 등에 제련소를 신설하여 전국에 6개소의 乾式製錬所가 생겼다. 이밖에도 濕式製錬所는 전국에 약 800을 헤아렸다. 生產實績은 1940년 현재 金이 25,288kg, 銀이 113,885kg이었다. 이중 70% 이상이 건식제련을 하는 6개 제련소의 생산이었다.

輕 金 屬 工 業

한국은 경금속공업의 발달에 필요한 경금속 자원과 전력 및 노동력을 풍부히 가지고 있었고, 軍需生產目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경금속공업은 가장 늦게

(17) 産銀『韓國의 産業』1962年版 653面 參照.

등장했기 때문에 그 비중은 크지 못했다. 이리하여 일본마그네슘금속공업회사가 흥남에 마그네슘금속공장을 세워 금속마그네슘을 제련하고, 일본마그네사이트화학공업회사 성진공장에서 탄산마그네슘클링커내화벽돌과 경금속제련 등을 하고 있었으며, 朝鮮理研興業會社가 남포에 설립되어 알루미늄제조를 하는 정도였다.

(3) 機械器具工業

자주적 독립적인 擴大再生產을 위해서 기계기구 공업의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식민지의 공업발달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일본은 機械器具工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쟁준비와 전쟁수행을 위하여 重化學工業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던 1930년대에도 表12 및 表13의 자료에서 보듯이 그 생산액은 1930년의 10,087,000원에서 1939년에는 53,225,000원으로 5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이것은 금속공업이 22배, 화학공업이 12배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격차인 것이다. 일제의 의식적 식민지 산업억제책은 국제정국의 변화로 그 실행이 어려워진 1930년대에 있어서도 기계기구 공업이라는 국민경제의 자립적 확대재생산의 기초부문을 억압하여 그 실효를 거두려 한 것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기계에 총 기계기구 수요의 대부분을 의존케 함으로써 일제는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에 기술적으로 예속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中日戰爭의 발발과 太平洋戰爭의 시작이후 기계기구공업은 화학공업이나 금속공업보다는 다소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대세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즉 1943년 현재 기계기구 공업의 자급률은 불과 24.7%에 지나지 않았고, 1940년대 이후 鐵道車輛·船舶機關 및 造船業 기타의 運輸用 機器와 產業用 機器의 생산증대, 그리고 일본에 있던 공장의 한국 소개 등으로 기계공업은 1939~1943년 사이에 2.1배가 되었지만, 해방 당시의 自給率은 51%정도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제 機械器具工業의 성장을 보면 表22과 같다.

<表 22> 機械器具工業의 成長 (단위 : 1,000원)

	절대액				상대비(%) (전체공업에 대한것)			
	1930	1936	1939	1943	1930	1936	1939	1943
생산액	3,328	7,398	53,228	115,000	1.3	1.0	4.3	5.6
공장수	224	344	613	1,354	5.3	5.7	8.8	9.0
직공수	2,854	7,939	29,579	47,821	3.4	5.3	10.9	8.7

資料 : 前揭年報 1939年, 1941~1942年, 1948年版 參照.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기계기구 공업을 급속히 건설하고자 광분하던 일본은 1943년을 전후하여 본토 폭격에 대비하여 중요공장의 한국으로의 소개를 진행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더구나 이것을 일본에 있어서의 機械器具工業이 1936~1939년 사이에 전체의 14.0%에서 22.2%로 그 상대적 비중을 높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1936년 현재 일본의 機械器具工業은 紡織工業의 29.8%, 金屬工業의 22.5%보다 약간 못한 22.2%의 比重을 차지하여 化學工業 및 紡織工業보다 훨씬 커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중 한국에서의 機械器具工業은 化學工業, 食料品工業, 紡織工業, 金屬工業에 다음가는 제 5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본토 공업 생산액에 대한 한국의 比를 부문별로 보면, 1939년 현재 0.8%로서 모든 공업부문 중 가장 낮다. 같은 해 전체로서의 한국 공업생산액이 일본 공업생산액에 대한 비는 4.4%였고 가스 및 電氣業은 43.9%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機械器具工業은 重化學工業 분야에서 가장 뒤떨어진 생식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1939년 현재 전체 공장의 74%를 점하는 종업원 5~29명의 小工場이 455개소, 종업원수는 4,927명으로 전체 機械器具工業 노동자의 20%가 고용되어 생산액의 17%를 생산하였다. 30~99명의 공장은 116개소에 종업원이 5,856명이고 100~199명의 공장은 22개소에 종업원이 2,882명이었고, 종업원 30~199명의 中工場은 공장수의 23%, 종업원수의 35%를 차지하여 생산액의 30%를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종업원 200~999명의 공장은 18개소이며 7,761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었고,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2개의 가장 큰 공장에는 3,319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비율적으로 보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공장은 공장수의 3%를 차지하나 노동자는 44%를 고용하여 機械器具工業 생산액의 53%를 생산하였다. 소공장의 비율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선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機械器具工業에 있어 매뉴팩처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소공장의 비율은 74%로서 공업 전체의 평균인 81.7%는 물론, 같은 重化學공업에 있어서도 化學공업의 79%나 金屬공업의 82%보다 작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機械器具工業이 餘他의 공업보다 가장 늦게 건설되기 시작한 까닭에 절대적으로는 微微하지만 늦게 등장하였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가장 근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機械器具工業의 이러한 성장발전은 타 산업과의 연관하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비행기 제작 등 전쟁수행을 위하여 급작스럽게 이식된 것이다. 따라서, 대공업과 중소공업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유기적 연관이 결여되어 대공업은 중소공업에 생산물의 일부를 下請시킬 수 없어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일관된 생산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機械器具工業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컸고, 한편 機械器具工業부문의 중소공업은 대공업과의 연관관계를 상실한 까닭에 그 경제적 기초는 지극히 미약하

였던 것이다. 이는 결국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은 機械器具工業의 낮은 자급률을 가져왔는데, 그 연차적인 변화를 보면 表 23과 같다. 한편 품목별로 자급률을 보면 度量衡器생산에 있어 자급률은 가장 높아 60%이고, 선박이 그 다음인 50.8%이고, 이하 제조가공용 기계의 19.6%, 원동기의 7.1%, 기관 및 부속품의 3.7%, 의료기구의 3.5%의 순서이며 공장기계, 철도기관차 등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表 23> 機 械 器 具 自 給 率 (단위 : 1,000원)

연 도	생산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초과	국내소비액	자급률(%)
		일 본	외 국	일 본	외 국			
1939	53,226	198,871	7,576	8,212	—	162,492	215,718	24.7
1940	75,699	243,685	14,307	13,685	13,579	230,736	306,435	24.7
1941	110,629	227,779	2,860	10,922	15,070	204,347	314,976	35.1
1942	105,979	217,393	332	16,004	5,316	190,405	302,375	35.0
9143	115,000	195,341	2,936	21,652	5,513	171,112	286,112	40.2
1944	130,000	—	1,411	15,614	9,850	121,678	251,678	51.7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개별 기업별로 본다면 관영공장으로는 철도국이 직영하는 여러 공작창이 있었고, 민간기업으로는 日帝가 전쟁준비에 광분하기 이전에는 차량을 주로 제조하던 龍山工作株式會社와 農工機械 생산을 하던 朝鮮商工會社의 두 회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후 1930년대 후반에 군수공업 건설이 본격화하자 이들 두 회사의 생산시설이 대확장을 하고, 한편 자동차, 비행기, 선박공업 등이 생겨났다. 즉 朝鮮重工業株式會社는 선박제조를 주로 하고 그 밖에도 電動機, 광산용 기계 등을 생산하였는데, 조선능력은 제2차 대전 말경에는 3만톤에 달했으며 생산실적은 1944년에 18,000톤, 1945년에는 7,800톤에 달하였다. 광산용 기계를 주로 제작하던 기업으로서는 조선 기계제작소, 조선제강소, 관동기계제작소, 북선제강소 등이 있었으며, 일본차량 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차량생산을 했고, 그 밖에도 시바우라 제작소 (芝浦製作所) 인천공장, 弘中商工株式會社에서 각종 기계를 생산하였다. 전쟁 말기에 가서는 昭和飛行機株式會社가 설립되었고, 일본 디이젤 공업회사 군산공장에서는 발동기 및 일반기계가 제조되었다. 한편 이러한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기업으로서 琺瑯鐵器工業의 발전도 현저했으며, 日鐵 및 三菱製鐵에서는 淸津에 최신식의 기계공업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기계공업의 건설상은 자못 활발하였다. 말기에 건설된 것으로는 도오쿄오自動車工業株式會社 부평공장, 朝鮮理硏金屬株式會社 대전 공장 등이 있었다.

3. 輕工業의 成長

産業聯關論的 입장에서 엄밀히 말할 때 군수생산과 관련이 없는 공업분야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을 말할 때는 경공업을 중화학공업에 비한다면 평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表 7에서 본 바와 같이 경공업의 생산액이 절대적으로는 1930~1943년 사이에 2억 2,278만원에서 10억 3,500만원으로 464.6% 늘어났으면서도 중화학공업의 생산액 증가율 1,744.5%보다는 훨씬 못하고, 또 공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의 79.3%에서 1943년에는 50.5%로 하락하였다는 사실은 군수생산과 제1차적인 관련이 없는 輕工業이 그만큼 정책적 육성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직공업과 같이 戰爭目的과 관련이 있는 輕工業은 같은 기간 중 절대적으로는 752.8%나 늘어나 輕工業의 평균 성장율 464.6%를 훨씬 上廻하였고, 상대적인 비중도 1930년의 16.3%에서 1943년의 16.9%로 커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輕工業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軍需工業化의 초기단계인 1930년대의 전반에 있어 공업 전반에 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던 電氣 및 가스업이 飛躍적으로 발전한 것을 例外로 한다면, 輕工業은 모두 평균적인 발전을 하였다. 가령 表 14의 重化學 공업의 성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屬工業과 화학공업처럼 特出하게 빠른 성장을 한 산업은 눈에 뜨이지 않는다. 각 공업부문의 성장률은

<表 24> 輕 工 業 의 成 長 (단위 : 1,000원)

연 도	방직공업	지 수	요 업	지 수	복제품공업	지 수	인쇄제책업
1930	45,693	100.0	10,460	100.0	5,546	100.0	8,666
1931	32,925	72.0	9,035	86.3	4,779	88.1	8,787
1932	47,197	103.2	9,840	94.0	4,021	90.5	9,676
1933	55,327	121.0	11,142	106.5	5,979	107.8	9,549
1934	67,791	148.3	12,472	110.6	7,271	129.2	11,238
1935	82,328	180.1	17,563	167.9	8,243	148.8	12,744
1936	99,477	217.4	21,876	209.0	9,936	180.9	13,133

연 도	지 수	식료품	지 수	가스전기업	지 수	기 타	지 수
1930	100.0	82,173	100.0	6,432	100.0	63,810	100.0
1931	101.3	80,999	98.5	16,129	250.7	43,197	67.6
1932	111.6	104,259	126.8	11,069	172.0	59,675	93.5
1933	110.0	122,730	149.3	10,987	170.8	64,382	100.9
1934	129.6	137,670	167.5	12,831	199.4	78,835	123.5
1935	147.0	169,420	206.1	39,804	618.8	91,027	142.6
1936	151.5	199.883	243.2	39,989	621.7	103,842	162.7

資料 : 上揭年報 1939, 1948年版 參照

消費財공업의 성장률인 260.1%(1930=100)와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戰時體制를 갖추기 시작한 1930년대의 후반기 이후에는 輕工業의 각부문간에 성장률이 현격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즉 방직공업이나 요업과 같이 軍需產業에 가까운 산업, 혹은 木製品공업과 같이 광업 및 건축업, 공업일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공업부문의 발전은 飛躍的이었고 그렇지 못한 소비재공업은 상대적인 停滯를 免하지 못했다. 1930년부터 1943년 사이의 소비재공업의 성장이 經常價格으로 측정하였을때 464.6%이었음에 비하여 紡織工業은 1930년의 45,693,000원에서 1943년에는 3억 4,500만원으로 752.8% 성장했고, 요업은 1,46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860.4% 성장했으며, 木製品공업은 5,546,000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무려 2,181.7% 성장하였다.

<表 25> 輕 工 業 의 成 長 (단위 : 1,000원)

연도	방직공업	지수	요업	지수	목제품공업	지수	인쇄제책업
1936	99,477	100.0	21,876	100.0	9,936	100.0	13,133
1937	141,153	141.9	25,071	114.6	11,756	118.1	16,304
1938	163,821	165.7	35,877	164.0	15,054	151.5	16,948
1939	201,351	202.4	43,337	198.1	21,061	212.0	19,373
1943	345,000	346.8	90,000	411.4	120,000	1,207.7	24,000

연도	지수	식료품	지수	가스전기업	지수	기타	지수
1936	100.0	199,883	100.0	39,988	100.0	103,842	100.0
1937	124.1	238,032	119.1	40,075	100.2	114,653	110.0
1938	129.0	277,207	138.7	24,501	61.3	134,123	129.2
1939	147.5	328,352	164.3	30,466	76.2	163,270	157.2
1943	182.7	400,000	200.1	30,000	75.0	26,000	25.0

資料 : 上揭年報 1939, 1948年版 參照

이에 비하여 印刷 製册業은 8,666,000원에서 2,400만원으로 276.9%, 食料品工業은 82,173,000원에서 4억원으로 486.7%, 가스 및 電氣業은 6,432,000원에서 3,000만원으로 466.4% 성장하였고, 기타 공업은 63,81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오히려 59.3% 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대부분 有限不足한 資源을 軍需工業 및 軍需工業과 密接한 관련을 가진 공업에 우선적으로 配定하여 戰爭遂行 능력을 極大化하려는 노력에서 必須的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것이다.

戰爭準備 및 戰爭遂行期間중 平和產業에 가까운 輕工業이 크게 等閑視되었다는 것은 物價上昇을 捨象한 實質成長率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重化學工業의 경우는 表 16과 表 17에서 보듯 戰爭期間중 다소 成長率이 鈍化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表 26> 輕 工 業 의 成 長

연 도	經常價格으로의 生産額	디플레이터	1930年價格으로의 生産額	指 數	實質成長率
1930	222,780	100.0	222,780	100.0	—
1931	195,851	80.5	244,245	109.6	9.6
1932	246,737	80.0	308,445	138.4	26.3
1933	280,096	88.7	315,889	141.8	2.4
1934	327,658	90.0	364,340	163.5	15.3
1935	421,129	99,3	424,058	190.3	16.4
1936	488,136	105.4	463,123	207.9	9.2
1937	587.044	122.6	478,826	214.9	3.3
1938	667,531	146.9	454,405	203.9	−5.1
1939	807,210	172.2	468,682	210.3	3.1
1943	1,035,000	227.7	454,542	204.0	−3.0

資料：第 24, 25 表에서 作成

<表 27> 輕工業의 部門別成長(1930 年價格)

연 도	紡織工業	指 數	窒 素	指 數	木製品業	指 數	印刷製本業
1930	45,693	100.0	10,460	100.0	5,546	100.0	8,666
1931	40,900	89.5	11,223	107.3	6,889	124.2	10,915
1932	58,996	128.4	12,300	117.6	6,276	113.2	12,095
1933	62,488	136.7	12,561	120.0	6,740	121.5	10,765
1934	75,323	164.8	13,858	132.5	8,079	145.6	12,486
1935	82,908	181.4	17,687	169.0	8,301	149.7	12,834
1936	94,380	206.5	20,755	198.4	9,427	169.9	12,460
1937	115,133	251.9	20,449	195.5	9,588	172.9	13,298
1938	111,518	244.0	24,423	233.5	10,248	184.8	11,537
1939	116,870	255.8	25,166	240.6	12,230	220.5	11,250
1943	151,515	331.6	39,525	377.9	52,700	950.2	10,540

연 도	指 數	食料品工業	指 數	가스電氣業	指 數	其 他	指 數
1930	100.0	82,173	100.0	6,432	100.0	63,810	100.0
1931	125.9	100,619	122.4	20,038	311.2	53,661	84.1
1932	139.6	130,324	158.6	13,861	215.5	74,593	116.9
1933	124.2	138,365	168.4	12,386	192.5	72,584	113.7
1934	144.1	152,744	185.9	14,256	221.6	87,594	137.3
1935	148.1	170,614	207.6	40,046	622.6	91,668	143.6
1936	143.8	189,640	230.8	37,940	589.9	98,521	154.4
1937	153.4	194.153	236.3	32,687	508.2	93,518	146.5
1938	133.1	188,700	229.6	16,677	259.3	91,302	143.0
1939	129.9	190,680	232.0	17,672	274.7	94,814	148.6
1943	121.6	175,669	213.8	13,175	204.8	11,418	17.9

資料：第 24.25 表에서 作成

꾸준히 그 生産을 증대시켜 갔다. 그러나 輕工業의 경우는 위의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30年代의 後半期에는 成長率이 급격히 鈍化되어가는 한편 1938년에는 —5.1% 라는 負의 成長을 기록하였고, 1940年代初에 있어서는 1939년에 비하여 해마다 0.75% 씩 縮小再生産을 하여나갔다. 그리하여 1931~1943년간의 輕工業의 成長率은 年平均 6.0% 로서 重工業의 그것에 훨씬 未達하며, 특히 1936년이후의 成長率은 年平均 1.0% 弱을 示現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戰爭經濟의 強要로 인한 輕工業의 壓迫은 部門別로 고찰할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軍需用被服 등의 생산을 담당한 紡織工業, 直接的으로 혹은 軍需生産施設建設을 위한 中間財로서 중요한 意義를 가진 窯業 및 製材工業등만이 이 기간을 통하여 다소라도 꾸준한 成長을 실현하였을 뿐, 印刷製本業이라든가 精米業爲主인 食料品工業,

<표 28> 생 산 양 식 별 공 업 생 산 액 (단위 : 1,000원)

1936	중화학공업	(%)	경 공 업	(%)	1939	중화학공업	(%)	경 공 업	(%)
민간공장	198,235	81.6	248,696	51.3	민간공장	637,947	92.3	45,833	56.6
관영공장	3,673	1.5	48,404	10.0	관영공장	4,337	0.6	67,600	8.4
가내공장	40,760	16.9	187,047	38.7	가내공장	48,780	7.1	279,780	35.0
계	242,658		484,147		계	691,066		801,213	

<표 29> 規 模 別 工 場 (1939년)

		5~29명	30~99명	100~199명	200명 이상	계
중공업	금속	232	48	6	9	295
	기계기구	455	116	22	20	613
	화학	1,273	253	59	33	1,618
	소계	1,960	417	87	62	2,526
	%	77%	16.5%	3.4%	2.5%	100.0%
경공업	방직	412	131	22	43	608
	요업	253	65	13	11	342
	제재	295	51	12	2	360
	인쇄	264	38	8	3	313
	식료품	2,130	170	32	16	2,348
	가스·전기	25	7	1	1	34
	기타	337	60	14	1	422
	소계	3,716	522	102	87	4,427
	%	84.9%	11.8%	2.3%	1.0%	100.0%
총계		5,676	939	189	149	6,953
%		81.7%	13.6%	2.7%	2.0%	100.0%

資料 : 上揭年報 1941, 1942年版 參照

그리고 개스業 등은 1936년 내지 1937년을 고비로 生産萎縮을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印刷製本業의 경우는 戰時統制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1943년에 있어서는 1931년水準이하로 그 生産活動이 줄어들었다.

전쟁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等閑視되었다는 것은 生産樣式의 근대화 정도에서도 볼 수 있다. 즉 1936년에 있어 가장 근대적 자본주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민간공장에서의 生産額比는 産業全體로서는 61.2%였었다. 그런데 이를 重化學工業과 경공업으로 나누어 考察하면, 중화학공업은 民間工場에서의 生産額比가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6%임에 반하여, 경공업의 그것은 51.3%에 불과하였다. 그 후 資本主義的 民間工業은 급속하게 발달하여 1939년에는 민간공장에서의 생산액은 72.8%로 늘어났다. 특히 重化學工業은 거의 전부가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企業形態를 갖추어 92.3%가 자본주의적 민간공업의 생산물이었음에 반하여, 경공업은 여전히 거의 半數가 전근대적인 매뉴팩처 단계인 家內工業에서 생산되어 근대적 민간공장의 생산액은 56.6%에 불과하였다. 그 절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간의 變化率을 보더라도 重化學工業은 81.6%에서 92.3%로 13.1%나 증가되었는데, 경공업은 51.3%에서 56.6%로 고작 10.3% 늘었을 뿐이다. 이와같이 근대적 자본주의 기업의 比重이 낮은 경공업에 있어서도 1939

<表 30> 規模別職工數 (1939년)

		5~29명	30~99명	100~199명	200명 이상	계
중공업	금속	4,677	2,416	752	3,827	13,612
	기계기구	4,927	5,856	2,882	11,080	24,745
	화학	11,839	12,196	8,349	19,909	52,293
	소계	21,443	20,468	11,983	34,816	90.650
	%	23.7%	22.6%	13.2%	40.5%	100.0%
경공업	방직	4,958	7,038	3,470	41,918	47,384
	요업	2,182	3,310	1,642	4,176	11,310
	제재	3,091	2,392	1,349	653	7,485
	인쇄	2,949	1,816	1,162	978	6,905
	식료품	17,463	9,151	4,224	4,709	35,547
	가스·전기	243	321	167	208	939
	기타	3,163	2,972	2,025	4,019	12,179
	소계	34,049	27,000	14,039	48,661	121,809
	%	28.0%	22.2%	11.5%	38,3%	100.0%
총계		55,492	47,468	26,022	82,477	212,459
%		26.1%	22.3%	12.3%	39.3%	100.0%

資料：上揭年報 1941, 1943年版 參照

년 현재 紡織工業의 그것은 77.5%이고 요업의 그것은 82.9%로서 모두 平均値인 72.8% 보다 높은데 이것은 그 두 공업이 비교적 軍需生産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 規模別로 보더라도 경공업의 열세는 현저하다. 表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大企業의 공장수는 149개로서 6,953개의 工場總數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화학 공업에 있어서의 대공장은 중화학 공업공장 22,526개소 중 62개소, 비율적으로는 2.5%로서 공업전체의 평균보다 크지만, 경공업의 그것은 1.0%로서 오히려 평균치를 下廻하고 있다. 그리고 5~29명의 零細工場은 중화학 공업의 77.6%보다 훨씬 큰 84.9%로서 공업 전체의 평균치인 81.7%보다도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즉 경공업은 重化學공업에 비하여 근대적인 生産樣式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

<表 31> 업종별 규모별 공장수 및 공산액 비율 (1939년)

규모별		소공업		중공업		대공업	
업종		공장수	생산액	공장수	생산액	공장수	생산액
중공업	금속	78.5	4.8	18.2	6.8	3.3	88,4
	기계기구	74.3	17.0	22.5	30.3	3.2	52.7
	화학	78.7	9.9	19.4	14.1	1.9	76.0
경공업	방적	67.8	5.9	25.2	8.3	7.0	85.8
	요업	74.0	10.8	22.8	16.7	3.2	72.5
	제재	82.0	52.1	17.5	47.9	0.5	—
	인쇄	84.2	25.5	15.0	54.7	0.8	19.8
	식료품	90.9	41.6	8.5	53.2	0.6	5.2
	가스·전기	73.6	49.8	23.5	37.0	2.9	13.2
	기타	79.9	34.8	17.5	39.8	2.6	25.4
합계		81.7	16.5	16.3	21.7	1.2	61.8

資料 : 上揭年報 1941, 1942年版 參照

니라, 그 규모도 또한 零細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從業員을 中心으로 보더라도 같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 200명 이상을 雇傭하는 大工場에 雇傭된 노동자의 비율은 重化學공업에 있어서는 전체의 40.5%인 데 비하여, 輕工業에 있어서는 38.3%로서 전체적 평균인 39.3%보다도 적다. 한편 30명 미만의 零細工場에 雇傭된 勞動者數는 전체평균은 26.1%인데비하여, 경공업은 28.0%로서 중화학공업의 23.7%보다는 4.3%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9명을 小工業, 30~199명을 중공업, 그리고 200명 이상을 대공업이라고 分類하고, 이 같은 大, 中, 小 공업의 규모별로 공장

수 및 생산액에 대한 비를 자본주의적 民間企業에 관하여 보면 表 31와 같다.

(1) 紡 織 工 業

輕工業의 成長을 이제 業種別로 주요한 몇 개만 分析해 보기로 하자. 綿紡織 공업의 생산액은 表 26과 表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에서 1943년에 이르는 사이에 45,693,000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752.8%가 늘어났다. 1938년 7월말 현재 紡績機錘數는 222,976錘, 紡織機는 7,386대이었고, 1945년 8월 解放 당시에는 紡績機 253,848錘, 紡織機는 8,640臺로 늘어났다. 紡織工業은 소위 移植工業의 가장 현저한 예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의 기업은 태반이 일본 방직회사의 子會社로서 시작된 것이었다. 1917년에 進出하여 1922년부터 操業하기 시작하여 한국 방직업의 효시를 이룬 朝鮮紡織株式會社는 釜山에 紡績機 39,376錘, 紡織機 1,210臺를 가지고 있었고, 1919년 民族資本인 三養財閥이 시작한 京城紡織株式會社는 가장 規模가 작아, 그 永登浦 工場은 紡織機 21,600추, 紡織機 896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東洋紡績 株式會社는 仁川工場에 紡績機 32,000추, 紡織機 1,280대를 가졌고, 永登浦 工場에는 紡績機 32,000추, 紡織機 1,400대를 가져 도합 紡績機 64,000추, 紡織機 2,680대를 가졌으며, 鍾淵紡績會社는 광주工場에 紡績機 5만추, 紡織機 1,000대, 그리고 永登浦 工場에는 紡績機 5만추, 紡織機 1,600대를 가지고 있었다. 1930年代 末에서 1940年代에 걸쳐 새로운 施設의 增加가 생겼는데, 앞서 든 鍾淵紡績이 大邱에 工場을 세워 紡績機 3만추, 紡織機 1,000대를 增設하였고, 大日本紡績會社가 永登浦에 工場을 세워 紡績機 42,000추, 紡織機 1,000대를 追加하였다.

<表 32> 紡 織 工 業 의 設 備 內 容

	면 방 적	마 방 적	견 직	모 방 직	재 생 방	메 리 야 스
방 적 기	238,760(추)	9,600(추)		2,060(추)	40,000(추)	
역 직 기	8,512(대)	70(대)	6,269(대)			
주 납 기			841(대)			
수 직 기			2,461(대)			
직 기				65(대)	157(대)	
수 회 기						1,624(대)
자 동 기						767(대)
장 갑 기						1,112(대)
횡 기						584(대)
건 기						209(대)
대 환 기						73(대)

資料：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織物工業은 紡績工業의 發達을 계기로 방적회사가 기직을 兼營하게 되면서부터 資本主義的 工場生産의 比重이 커졌다. 그 代表的인 것을 들면 木浦의 朝鮮綿花會社는 직기 120대로 면직물을 생산하였고 서울의 朝鮮絹織會社는 織機 97대로 絞織物을 생산하였으며, 역시 서울의 大昌 織物會社가 직기 108대를 가지고 있었고 安養의 朝鮮織物會社가 431대의 織機로 人絹絲를 생산하고, 서울 청량리의 泰昌織物이 직기 300대로 인견을 생산했으며, 釜山의 朝鮮紡績이 직기 300대로 그 역시 인견을 짜냈고, 釜山織物工場 역시 직기 150대로 인견생산에 從事했고, 帝國製麻 釜山工場은 150대의 직기로 麻布를 生産하였다. 解放前의 主要 紡織工業의 設備內容은 表 32와 같다.

軍服製造 등 軍需生産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1930年代 以後 紡織工業이 急速한 成長을 하였지만, 그 크기란 미미한 것이어서 日本에서의 生産額에 대한 韓國紡織工業 生産額의 比는 1936年의 2.0%에서 1939年에는 3.2%로 약간 늘어났을 뿐이고 自給率 역시 1941年 現在 55.9%라는 낮은 것이었다. 특히 紡織工業 중에서도 새로운 技術分野에 속하는 스프직물 공업이나 毛織物 工業은 國內 生産이 全無하여 100% 日本에 依支하고 있었으나, 綿織物은 97%의 自給率을 實現할 수 있었다. 이제 주요 직물별 자급률을 1941~1942年의 2年 平均으로 보면 表 33과 같다.

紡績 및 紡織工業은 이같이 對日依存을 면하지 못하였지만, 繰綿이라든가 면사, 누에고치 같은 纖維工業 原料의 對日輸出은 현저하였다. 즉 1942년 현재 조면은 2,062,000근이 日本에 수출되고 14,000근이 거꾸로 輸入되어, 결국 2,048,000근의 繰綿이 綿織物 工業

<表 33> 主 要 織 物 의 自 給 率 (1941~42년)

종 목	국내생산	수 입	자 급 률
견 직 물	5,018	57,742	8%
견 교 직 물	14,438	37,516	25%
인 견 직 물	21,345	27,590	44%
스 프 직 물	—	5,304	0%
면 직 물	108,319	3,853	97%
마 직 물	4,894	5,674	47%
모 직 물	—	6,896	0%
기 타 교 직 물	3,328	—	100%
기 타 직 물	579	890	40%
합 계	157,921	145,465	52%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原料로서 일본에 輸出된 셈이었다. 綿絲는 1,426,000근이 수출되었으며 누에고치는 581,000근이 수출되고 9,000근이 수입되어, 결국 572,000근이 日本으로 흘러 나왔고, 生絲는 307,

000근이 수출되었고, 麻는 17,884,000근이 수출되고 29만근이 수입되어, 差減하면 17,594,000근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한국에서의 紡織工業은 결국 日本 자본주의 공업을 위하여 繰綿 또는 綿絲 등 紡織工業 原料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抑壓되었던 것이다. 특히 가따꾸라(片倉), 郡是, 鍾紡 등이 굴지의 것으로 1936년 현재 1,252톤의 생사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2) 窯　　業

공업화에 따르는 建築·土木工業으로 시멘트 공업 및 벽돌 製造工業은 현저한 발전을 하였다. 특히 시멘트 공업은 1930년대를 전후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重要產業統制法의 試行對象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후의 성장은 다소 停滯되었으나 朝鮮小野田 시멘트회사 系統의 3개 공장에서 80만톤, 조선 시멘트회사에서 50만톤, 그리고 조선아사노(朝鮮淺野) 시멘트회사에서 18만톤 등 7개 공장에서 1942년 현재 160만톤의 生產能力이 있었다.

벽돌 제조공업에 있어서는 보통 벽돌은 거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었다. 耐火 벽돌은 닛테쓰(日鐵)공장에서 附產物로서 생산되었으나 自給이 不足했던 것은 일본 마그네사이트 화학공업 회사가 그 제조에 着手함으로써 自給할 수 있게 되었다.

유리공업에 있어서는 거의가 前近代的인 小工場에서 병, 식기, 램프 등 유치한 製品만을 생산하였고,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小型 전구공업이 급격한 발전을 하였다. 유리공업이 근대적 형태를 갖추기는 1939년 영등포에 제 2초자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인데, 동 공장은 自動式 製造施設로 주로 일본의 맥주병 需要를 충족시켜 주었다. 1940~1945년간에는 부산에 日光초자회사가 半自動式施設을 갖고 설립되었고, 영등포에 自動式과 手動式을 兼備한 조선 초자회사가 설립되었다.

(3) 食料品 工業

양조공업에 있어서는 거의 自給自足을 할 수 있을 정도로 生產이 擴充되었다. 그 중 淸酒, 맥주, 포도주, 간장, 된장 공업은 일본의 移植工業으로서 日本資本의 進出에 의한 것이었고, 소주공업에 있어서도 日本人 資本의 進出이 현저하였다. 탁주·약주 등 在來酒는 民族資本에 의하여 무수한 小工場이 亂立되어 精米業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업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의 것이었다.

精米工業은 공장 數文에 있어서는 1,500여개를 넘어 절대적인 것이고, 食料品 공업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커진 것도 이 때문인데, 비록 機械化된 大工場이 많다고는 하나 엄밀하게는 공업이라고 看做할 수 없다.

製粉 공장은 滿州事變 이후 滿州市場을 상대로 급격한 성장을 하여 일본 製粉會社 朝鮮

工場(3個所), 일청 製粉工場, 豐國 製粉工場(2個所) 등이 新設되었다. 生產實積은 대략 250만 포대였다.

전분 제조공업은 동양 제일을 일컫던 日本穀產工業會社를 중심으로 상당히 활발한 生產活動을 記錄했다.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포도당, 사료인 글루우덴피드 등을 생산하였었다. 日本穀產 平壤工場에서의 옥수수 處理能力은 연간 45,000톤에 달했는데 그 製品은 대부분 輸出되었다.

東海岸 일대에는 정어리, 게, 청어 등을 위주로 하는 통조림 공장이 생겨 年間生產額은 300만원에 달하였고, 특히 정어리 통조림 공업이 활발하였다. 그 밖에도 식료품 공업에 속하는 것으로는 과자공업, 한천 제조공업, 제당공업, 음료수 공업 등이 있었으나 신통하지 못했고, 戰爭事情 惡化로 별로 발전을 못했다.

4. 經濟的 地域差의 激化

1930년대를 통해 한국의 공업이 급격한 발전을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1920년대까지의 植民地 工業 抑壓政策이 侵略戰爭의 遂行이라는 經濟外的인 目的을 위하여 一大轉換을 이루었고, 그 때문에 最新의 重化學 工業이 建設됨으로써 한국공업은 外形的으로는 현격한 변화,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플러스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바로 戰爭遂行을 위하여 공업화가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表 34〉 南 北 韓 의 業 種 別 工 產 額

(1940년, 단위 : 1,000원)

		南 部	%	北 部	%	合 計
중공업	화학	91,172	18	410,578	82	501,750
	금속	13,602	10	123,490	90	137,092
	기계	38,406	72	14,820	28	53,226
	소계	143,180	21	548,888	79	192,068
경공업	방직	170,986	85	30,356	15	201,342
	요업	7,966	21	31,276	79	39,242
	제재	13,749	65	7,312	35	21,061
	인쇄	17,246	89	2,127	11	19,373
	식료품	213,628	65	114,724	35	328,352
	가스·전기	11,097	36	19,366	64	30,463
	기타	127,474	78	35,794	22	163,268
	소계	562,146	80	240,955	20	803,101
합계		705,326	48	789,843	52	1,495,169

資料 : 上揭年報 1948年版 參照

産業建設에 있어서는 立地條件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立地條件은 원료, 공업용수, 기후, 전력 등 기술적인 요인의 작용도 크지만, 消費地의 遠近이라는 經濟的 要因도 그만 못지 않게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1930년대 이후에 이룩된 공업은 軍需生産을 위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需要處로서 都市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消費市場에 가까와야 한다는 立地論的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重化學 工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韓國內의 여타 산업, 특히 경공업과의 産業的 聯關을 갖지 않고, 일본산업의 孤立的 植民地로서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공업과의 관련하에 立地論的 制約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3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공업화는 韓國人民의 經濟的 要求는 제1차적으로는 관련을 갖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技術的으로 보아 有利한 북부에 集中 建設되었고, 남부는 급속한 공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除外되었다. 1940년 현재 業種別 工業 生産額을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여 考察하면 表 34와 같다. 이 表를 보면 金屬工業은 90%, 化學工業은 82%가 북부에서 생산되었고, 輕工業에 있어서는 窯業이 79%, 가스 및 電氣業은 64%가 북부에서 생산되었다. 그리하여 輕工業을 20.0%, 重化學 工業은 79.0%가 북부에 偏重되어 工業生産額 全體로 보면 52.0%가 북부에서 생산되었다. 이것은 有煙炭의 99.5%, 無煙炭의 97.7%, 銑鐵 100.0%, 鐵鑛 99.9%, 흑연 71%, 텅스텐 및 수연광 78.5%, 금 70.7%, 금은광의 72.7%가 북한에 埋藏되어 있다는 原料事情, 그리고 電力의 92%가 이 역시 북한에서 발전되고 있다는 技術的 立地條件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에 있어 인간의 경제생활이 공업생산에 依存하는 度가 커져 간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런데 그 工業化가 일부 地域에 偏重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地域間 移動 可能性이 작다는 사실과 아울러 생각할 때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提起한다. 그것은 마치 미국이 남부와 북부, 혹은 이탈리아의 남부 및 북부와 같이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인 북부는 富裕하고, 공업화에서 소외된 남부는 沈滯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경제적 지역차는 공업화가 전국민의 經濟的 厚生의 增大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업화의 본래 목적에 비출 때 그 合目的性을 沮害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擴大는 경제적 厚生의 증대를 沮害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이같이 격심한 경제력의 차는 해방 이후 38도선의 分斷이라는 政治的 事件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稀薄했던 북한의 공업과 남한의 농업, 북한의 重工業과 남한의 輕工業 사이의 産業關聯을 破壞하여 經濟的 攪亂을 激化시키고, 남쪽에 사는 한국인의 경제력

을 微弱하게 함으로써 6·25動亂을 絶頂으로 하는 政治的 經濟的 苦難의 根本原因이 되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다.

III. 餘他의 經濟的 變化

1. 產業構造

193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추진된 韓國經濟의 軍需工業化는 重化學工業의 급속한 成長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日本人들이 말하였던 소위 「外地的 性格」을 여전히 温存한 채 추진되었던 까닭에 產業聯關論에서 설명하는 他產業에의 成長波及效果는 그다지 크지 못하였다. 이것은 II의 分析에서도 보듯 重化學工業의 成長이 비록 比例以下로나마 輕工業의 성장을 同時에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日本經濟를 중심한 戰時經濟化의 一環으로 실현된 30年代의 韓國의 工業化가 產業構造에 歪曲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즉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事後的인 實證的 究明을 가능케 할 資料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상히 증명할 수는 없다. 또한 그 당시는 서비스業에 대한 生產統計가 不正確하게나마도 存在하지 않으므로, 최근에 盛行되는 國民所得論的인 分析도 불가능하다. 다음의 表는 이러한 不備點을 최대한도로 배제한 후에 얻어진 試導的인 計數인데 당시의 產業構造에 대하여 概括的인 理解를 갖게끔 하기에는 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表에 의할 때 農林水產業, 특히 農林業의 純生產의 變化는 1930年代를 통하여 현저하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要因의 作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戰爭經濟 또는 韓國工業의 軍需工業化와 관련되는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化學肥料工業의 軍需生產에 專念하게 됨에 따라 施肥를 통한 土地生產性의 上昇이 停滯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둘째 徵用 및 徵兵의 強制로 農業勞動力이 不足하게 되어 勞動生產性의 上昇 역시 停滯되게 되었다는 것, 세째 供出이라는 名目으로 강제된 植民地政府에 의한 쌀의 不等價強制買上으로 農民이 增產意欲을 잃었다는 것(그리고 여기에는 產出高의 過小申告도 포함된다.)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그리고 그밖의 여러 原因에 의하여 1930年현재 1,245百萬圓에 달하였던 第1次 產業의 純生產은 1940년에 가서는 1,163百萬圓으로 오히려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1930년에 21百萬圓에 불과했던 鑛業의 純生產은 1940년에도 134百萬圓으로 6.5倍나 커지는데, 이것은 아우타르키體制下에서 軍需生產을 하기 위한 經濟的 要求가 有限한 鑛山資源의 收奪을 강요한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1930년현재 有形財純生產의 1.6%를 차지한데 불과하였던 鑛業이 1940년에는 8.1%

로 커진 것은 這間의 事情을 무엇보다도 雄辯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工業은 1930년의 121百萬圓에서 1940년에는 364百萬圓으로 3倍나 커졌으며 그 相對的 比重

〈表 35〉 産 業 構 造 의 變 化

	農 業	林 業	水 産 業	鑛 業	工 業	總 計
1930	1,062	100	83	21	121	1,387
31	947	84	69	20	123	1,243
32	1,022	69	60	31	143	1,325
33	1,056	115	68	40	152	1,431
34	961	105	64	59	185	1,374
35	1,029	108	74	70	245	1,526
36	907	106	87	88	290	1,478
37	1,141	116	91	99	298	1,745
38	1,059	125	87	119	275	1,665
39	756	123	120	105	319	1,423
40	903	126	134	134	364	1,661

資料：『朝鮮經濟年報』 1939, 1944, 1941-2, 1948 年號서 作成

도 1930년의 8.9%에서 1940년에는 21.9%로 커졌다. 그러나 이같은 工業의 絶對的 및 相對的 成長이 韓國人民의 經濟的 福祉와는 관계없는 日本國帝主義의 侵略戰爭의 遂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外樣으로는 이같은 工業化의 결과 有形財産業에 있어 第2次産業이 차지하는 비

〈表 36〉 産 業 構 造 의 變 化

	第 1 次 産 業	第 2 次 産 業
1930	89.6	10.4
31	88.5	11.5
32	86.9	13.1
33	86.6	13.4
34	82.3	17.7
35	79.4	20.6
36	74.5	25.5
37	77.3	22.7
38	76.3	23.7
39	70.2	29.8
40	70.1	29.9

資料：『鮮朝濟經年報』 1939, 1944, 1941-2 1948, 年號서 作成

중은 表 3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30년의 10.4%에서 1940년에는 29.9%로 커졌다. 表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9년에서 1968년에 이르기까지의 韓國經濟에 있어 有形財産業 중 鑛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1959년에 고작 24.8%이고 1968년에 가서야 44.8

%로 커졌으며, 1962~64년 평균이 29.8%였음을 볼 때 30年代의 軍需工業化가 얼마나 급격한 것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表 37〉 有 形 財 產 業 의 構 造

	第 1 次 産 業	第 2 次 産 業
1959	75.2	24.8
60	73.7	26.3
61	75.0	25.0
62	70.6	29.4
63	68.8	31.2
64	71.2	28.8
65	67.2	32.8
66	66.4	33.6
67	60.6	39.4
68	55.2	44.8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서 作成

2. 貿易構造

30年代의 工業化가 日本帝國主義의 侵略戰爭 目的을 위하여 三井, 三菱, 住友, 野口등 日本 大財閥의 資本에 의하여 他律的으로 이루어져감에 따라 貿易면에서도 對日依存이 커져가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對日依存의 深化는 貿易의 量的 發展과 발맞추

〈表 38〉 貿 易 의 趨 移

	輸 出	輸 入	合 計	入 超
1930	266,547	367,048	633,595	100,501
31	261,798	270,466	532,264	8.668
32	311,354	320,356	631,710	9,002
33	368,628	404,185	772,813	35,557
34	465,367	519,150	984,517	53,183
35	550,796	659,403	1,210,199	108,607
36	593,313	762,417	1,355,730	169,104
37	685,543	863,552	1,549,095	178,009
38	879,606	1,055,928	1,935,534	176,322
39	1,006,794	1,388,448	2,395,242	381,654
40	947,809	1,536,368	2,484,177	588,559
41	973,297	1,519,339	2,492,636	546,042
42	944,721	1,489,820	2,434,541	545,099
43	913,666	1,544,256	2,457,922	630,590
44	900,032	1,092,697	1,992,729	192,665

資料：『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p. I-136
註：1944년은 1~11月 合計임.

어 이루어져 갔다. 즉 1920年 8月에 日本과 共通關稅制度를 갖게된 이래 1920년의 輸出 197,020千圓, 輸入 249,286千圓, 貿易總額이 도합 446,306千圓에서 1929년의 수출 345,664千圓, 輸入 423,094千圓, 貿易總額 768,757千圓으로 10년동안에 92.2% 증가한데 불과했던 貿易은 表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年代에 있어서는 1930년의 수출 266,547千圓, 수입 367,048千圓, 貿易總額 633,595千圓으로부터 1939년에는 수출 1,006,794千圓, 수입 1,388,448千圓, 貿易總額 2,395,242千圓으로 같은 10년기간에 278.0%나 커졌다. 이는 그동안의 物價變動을 감안하더라도 1920年代의 貿易伸張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빠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40年代에 들어와서는 戰爭의 激化로 貿易伸張은 다소 停滯되어, 1944년에 있어 수출은 900,032千圓으로, 수입은 1,092,697千圓으로 각기 줄어 결국 貿易總額은 1,992,729千圓으로 감소되었다.

이같은 輸出入貿易의 擴大는 貿易赤字의 확대를 수반하였으니, 1930년에 100,501千圓에 불과했던 入超額은 1939년에는 381,654千圓으로 輸出의 대략 38%에 달했고, 1943년에는 630,590千圓에 달하여 수출의 70% 가량의 크기가 되었다.

工業化가 進展되는 初期段階에서 商品計定의 赤字가 貿易部門에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같이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工業化가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던 1940년에 있어서 韓國의 輸出商品을 原產地別로 보면 國內에서 생산된 것은 134,205千圓에 불과하고, 그대신 日本에서 생산된 것의 再輸出이 132,366千圓이고 소위 圓불럭에 속하는 第3國 商品의 再輸出이 3,330千圓으로, 輸出에서 차지하는 國內生產品의 比重은 49.7%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國際收收惡化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表 39〉 輸 出 商 品 의 產 地 別 構 成

	韓 國 產 (A)	日 產 (B)	外 國 產 (C)	韓國產比$\left(\frac{A}{A+B+C}\right)$
1937	67,084	40,312	5,701	59.3
1938	102,043	64,800	2,213	60.4
1940	134,205	132,366	3,339	49.7

資料：鈴木武雄, 『朝鮮の經濟』, p. 291

는 輸出入貿易이 商品構造面에서도 對日依存을 深化시켜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貿易의 對日依存激化는 輸出入이 소위 圓불럭에 얼마만큼이나 依存하고 있는가 하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1937년에 있어 韓國의 對日貿易 중 圓불럭이 차지하는 크기는 수출의 경우에 85.7%에 달하며, 수입의 경우는 다소 낮다고 하나 62.0%를 차지하고 있다. 圓불럭에의 依存은 더욱 커져 1939년에는 수출의 96.9%, 수입의 62.2%를 依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39년에 있어 韓國은 日本의 輸出總額 5,192,609千圓중 23.7%

에 해당하는 1,229,417千圓을 수입하고 있어 第1位의 輸出對象地域이 되고 있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日本의 총수입액 4,209,539千圓의 17.5%에 해당하는 736,882千圓을 공급하여 第1位인 美國의 1,002,384千圓에 이어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

〈表 40〉 韓 國 貿 易 의 對 日 依 存

(圓불럭이 韓國輸出入貿易에서 차지하는 比重)

	輸 出	輸 入
1937	85.7%	62.0%
1938	96.3	59.7
1939	96.9	62.2

資料：鈴木武雄, 『朝鮮の經濟』, p. 293.

筆者 서 울 大 學 校 商 科 大 學
韓 國 經 濟 硏 究 所 硏 究 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敎授